

20 세기의괴물제국주의

고토쿠슈스이

고토쿠슈스이
20 세기의괴물제국주의
1901 년 4 월 20 일

帝國主義, 警醒社書店
『廿世紀之怪物帝國主義』라는제목으로 1901 년 (메이지明治 34 년)
4 월 20 일에경성사서점警醒社書店에서간행되었다. 재판은 1901 년
5 월 10 일, 제 3 판은 1903 년 10 월 10 일, 제 4 판은광고만존재하고
실물은확인되지않았다. 1902 년에는중국에서번역출간되었다 (趙必
振譯, 『二十世紀之怪物帝國主義』, 上海通雅書局).

차례

『제국주의』에서문을부치다	3
일러두기세가지	3
제 1 장서언	4
제 2 장애국심을논하다	6
제 3 장군국주의를논하다	22
제 4 장제국주의를논하다	39
제 5 장결론	54

『제국주의』 에서문을부치다

인류역사는태초부터종말에이르기까지신앙과힘의경쟁사다. 어느 때는신앙이힘을제압하고또어느때는힘이신앙을제압한다. 빌라도가그리스도를십자가에못박았을때는힘이신앙에승리했을때다. 밀라노주교 암브로시우스가황제테오도시우스에게참회를명했을때는신앙이힘에 승리했을때다. 신앙이힘을제압했을때세상에광명이있고, 힘이신앙을 제압했을때세상은암흑이다. 그리고지금힘이다시금신앙을제압하는 암흑시대다.

정부에는우주의조화를도모하는철학자가한사람도없는데, 육지에는 13 사단의군대가있어창과칼이도처에서번쩍이고있다. 민간에는백성의우수를위로하는시인이한사람도없는데, 바다에는 26 만톤의전함이분쟁도없는해상에큰파도를일으키고있다. 가정의문란은극에달하여 부자는서로원망하고형제는서로다투며고부는서로혈뚫고있는데도, 바깥으로는동해의벚꽃나라, 세계의군자국임을자랑하고있다. 제국주의란실로이와같은것이다.

나의벗고토쿠슈스이군의 『제국주의』 가완성되었다. 자네가소장파의몸으로오늘날의문단에기치를올리고있는것은세상이다아는바이다. 자네는기독교신자는아니지만, 세상의이른바애국심을몹시미워한다. 자네는한번도해외의자유국에서유학한적이없지만, 성실한사회주의자다. 나는자네와같은인사를벗으로둔것을명예로여겨여기에이독창적저술을세상에소개하는영광을부여받은것을감사한다.

메이지明治 34 년 (1901 년) 4 월 11 일도쿄외곽쓰노하즈角筈마을에서
우치무라간조

일러두기세가지

하나. 동양의풍운은나날이다급해지고천하는공명을위하여열광하고있다. 세상의지사나애국자들이모두머리카락이거꾸로서고눈초리가올라가몹시흥분하고있을때, 홀로냉정히이론을풀이하고도덕을설파한다. 남송이멸망할때충신육수부가애산厓山앞바다배안에서 8 세의어린 황제에게 『대학大學』 을가르친고사와마찬가지로, 독선과우회라고조

소당할것임은나도알고있다. 하지만조소에만족하며도덕을설파하는것은, 영원히정의의길을지키기위하여스스로심려하고헌신하지않고는견딜수없기때문이다.

아아, 내마음을알아사회에전하는것은오로지이책뿐인가. 그리고사회의비난을받으며나를벌하는것도오로지이책뿐인가.

하나. 전편의논지는서구지식인들이일찍이충고하여널리알려진바다. 그리고지금은톨스토이, 졸라, 존몰리, 베벨, 브라이언이가장앞에 서있다. 그외에극히진보된도의를갖추고극히고상한이상을품은여러인사들도모두절실히흠모하지않을수없다. 그때문에나는뻔뻔스럽게‘저술’이라하지않고‘기술’이라고했다.

하나. 사소한소책자이기애초에소견을상세히다논할수는없었지만, 요강을제기할수는있었다고믿는다. 이책이세상의벽창호들에게도다소나마각성해야할때임을알리고진리와정의를위해얼마간공헌을할수있다면, 그것이내가바라는바다.

메이지明治 34 년 (1901 년) 4 월

벚꽃이흐드러진시절「조보사」편집국에서

슈스이생 (秋水生) 기술

제 1 장서언

제국주의, 들불처럼일다

이른바제국주의의유행이참으로대단하다. 기세가들불과같다. 세계만국이모두제국주의의발밑에엎드려찬미하고송배하며받들지않는자가없다. 보라. 영국의정부와민간은모두제국주의의신도다. 독일의호전적인황제는열성으로제국주의를고취하고있다. 러시아는물론제국주의를전통적인정책이라고부른다. 그리고프랑스나오스트리아나이탈리아도마찬가지로제국주의를대단히기뻐하고있다. 미국같은나라마저도최근들어빈번히제국주의를배우려하는것처럼보인다. 우리일본에서도청일전쟁에서크게이긴뒤로위아래모두제국주의에열광하는모습은멍에를벗어던진사나운말과같다.

무슨덕이있고무슨힘이있나

이곤편협한애국심을압도할수있는것이다. 사해동포의세계주의가곤약탈적제국주의를소탕하고잘라내버릴수있는것이다.

칠흑같은암흑의지옥

무사히이대로계획이 실현되었을때우리들은비로소부정과불의, 비문명적이고비과학적인현재의천지를개조할수있고, 사회의영원한진보를기대할수있으며, 인류의전반적복리가완전해질수있는것이다. 만약그렇지않고오래도록오늘날의추세대로방임하고반성하지않는다면우리들의앞길에는오로지칠흑같은지옥이 기다리고있을뿐이다.

옛날에다이라노도키타다는“다이라씨가아닌자는인간이라도인간이아니다”라고자랑했다. 오늘날제국주의를신봉하지않는자는거의정치가라도정치가아니며, 국가라도국가가아닌것같다. 제국주의는과연무슨덕이있으며무슨힘이있고무슨소중한가치가있어서이다지도유행하게되었는가.

국가경영의목적

생각건대국가경영의목적은사회의영원한진보에있으며, 인류의전반적복리福利에있다. 그렇다. 단지현재의번영만이아니라영원한진보에있으며, 단지소수계급의권세가아니라전반적복리에있다. 지금의국가와정치가가신봉하는제국주의는우리들을위해서얼마만큼진보를돕고자하는가, 얼마만큼복리를주려고하는가.

과학적지식과문명적복리

나는사회의진보와그기초는반드시진정한과학적지식을기다리지않으면안되며, 인류의복리는그원천이반드시진정한문명적도덕으로귀착하지않으면안된다고믿는다. 그리고그이상은절대로자유와정의가아니면안된다. 그극치는반드시박애와평등이아니면안된다. 동서고금의역사를보아도이것이능히순응하는자는송백이겨울을견디듯이번성하고, 이것을거역하는자는봄날의꿈처럼덧없이무너져버린다. 제국주의정책도이기초와원천을토대로이상의극치를향해나야간다면, 이주의는실로사회와인류를위하여천국에서온복음이다. 나는기꺼이제국주의를위하여선봉에서고자할것이다.

하지만만약불행히도제국주의가발흥하고유행하는근본이유가과학적지식이아니라미신이며, 문명적도덕이아니라열광이고, 자유·정의·박애·평등이아니라압제·부정·고루·투쟁이었다고하자. 그리고가령이탐욕과악덕이정신적으로든물질적으로든세계만국을지배하는일이이대로끝이없다고하자. 그해독이끼치는영향을생각하면소름이끼치지않은가.

천사인가악마인가

아아제국주의여, 네거침없는기세는 20 세기의천지에적광정토寂光淨土를출현시키려고하는것인가.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떨어뜨리려고하는것인가. 진보인가부패인가. 복리인가재앙인가. 천사인가악마인가.

대단히곤란한급무

그진상과실질의내용을연구하는것은 20 세기를움직이는지도자들에게대단히곤란한급무가아닌가. 이것이부족한내가무능함을돌아보지않고굳이붓을쥐고어쩔수없이의견을밝히는까닭이다.

제 2 장애국심을논하다

1

제국주의자의합성

우리국민을팽창시키자. 우리판도를확장하자. 대제국을건설하자. 우리국위를떨쳐일으키자. 우리국기를영광되게하자. 이것이이른바제국주의자의합성이다. 그들이자신의국가를사랑하는마음은깊다.

영국은남아프리카를무찌르고미국은필리핀을토벌했다. 독일은자오저우膠州를손에넣었고러시아는만주를빼앗았다. 프랑스는파소다(수단)을정복했고, 이탈리아는아비시나아(에티오피아)에서싸웠다. 이것은최근제국주의를강행하는곳에서드러난눈에띄는현상이다. 제국주의의가향하는곳에는군비나군비를방패로한외교가뒤따르지않는경우가없다.

애국심을씨실로, 군국주의를날실로

그렇다. 제국주의가발전하는흔적을보라. 제국주의는애국심을씨실로하고군국주의를날실로하여짜낸정책이아닌가. 적어도애국심과군국주의는현재열국의제국주의가공유하는조건이아닌가. 따라서나는제국주의의시시비비와이해득실을판정하고자한다면, 우선애국심과군국주의에대해서가장많은검토를하지않으면안된다고말하고싶다.

애국심이란무엇인가

그렇다면지금의애국심또는애국주의란무엇인가. 이른바패트리아티즘 patriotism 이란무엇인가. 우리들은어떻게우리국가, 국토를사랑할것인가, 또는사랑하지않으면안될것인가.

2

애국심과측은동정

생각건대아이가우물에빠지려는것을보면누구나달려가아이를구하는데주저하지않으리라는것은중국의맹자가말한대로며, 우리들도마찬가지다. 만약애국심이정말로아이를구하는것과같은동정심, 측은지심, 자선의마음과같다고할수있다면, 정말로아름답고순수하며한점사심도없는것이다.

하지만생각해보라. 진실로고결한측은지심과자선의마음은결코자기와가까운지아닌지를문제삼지않는다. 이것은마치위급한아이를구할때우리아이인지남의아이인지를묻지않는것과같다. 그런탓에세계만방

는자유와평등을파괴한다. 우리들은생산과분배의공평함을바라고있다. 그런데제국주의는생산과분배의불공평함을더욱더자극한다. 문명의위기에진정으로이보다더큰것은없다.

20 세기의위험

이것은나의개인적인견이아니다. 작년에뉴욕「월드 World」신문이〈20 세기의위험〉이라는제목으로서구의여러명사에게의견을구했을때, 군비주의와군국주의가가공할만한것이라고답변한사람이대단히많았다. 프레더릭해리스는장래의정치적위험은유럽각국이과다한군대와군함과군비를축적하는데있으며, 그결과는곧그들의통치자와인민을유혹해서주로아시아, 아프리카땅에지배권을다투게하려고하기때문이라고했다. 쟁월은 20 세기의위험은군국주의라는중세사상의반동적흥기라고했다. 하디는군국주의보다위험한것은없다고했고, 블린트는위험은제국주의라고했다.

페스트의유행

그렇다. 제국주의는마치페스트의유행처럼추잡하고무섭다. 그것에접촉하는곳은당장에멸망에이르고만다. 애국심은진정으로그병균이다. 군국주의는틀림없이전염의매개인것이다. 생각건대 18 세기말에프랑스혁명의대청결법은유럽의천지를청소하고일단소멸했다. 그이후영국의 32 년개혁이나프랑스의 48 년혁명이나이탈리아의통일이나그리스의독립은한결같이이제국주의라는역병의유행을막는수단이였다. 그래도그사이나폴레옹이나메테르니히(Klemens Wenzel Lothar von Metternich, 1773~1859) 나비스마르크패거리가교대로병균을뿌려댔기때문에결국오늘날과같은유행을불러왔던것이다.

애국적병균

이제이애국적병균은관민과상하에만연하고제국주의페스트는세계각국으로전염되어, 20 세기문명을파괴하지않고는못배길듯한기세를 보이고있다. 사회개혁의건으로서국가의유능한의사醫師를자임하는의료원지사부가디크게분발하여일어나지않으면안될때가아닐까.

대청결법과대개혁

그렇다면어떠한계획으로오늘날의급무에대응하지않으면안되는가. 다름아니다. 사회와국가를향해대청결법을시행하라. 바꾸어말하면세계적대혁명운동을개시하라. 소수의국가를변혁하여다수의국가로만들라. 육해군인의국가를변혁하여농상공인의국가로만들라. 귀족전제의사회를변혁하여평민자치의사회로만들라. 그런후에야정의와박애심

러한물거품같은팽창에애쓰면서멸망으로향하는위험을깨닫지못하고 있다.

일본의제국주의

그리하여지금우리일본도마찬가지로이주의에열광하여다른것은돌아보지않는다. 13 사단의육군, 30 만톤의해군은더커졌다. 타이완의영토가확장되었다. 의화단운동에군대를파견했다. 국위와국광은덕분에올라갔다. 군인은가슴팍에허다한훈장을장식했다. 의회는이것을찬미했다. 문사와시인은이것을칭송했다. 그런데이영토확장은얼마나우리국민을위대하게했는가. 얼마만큼우리사회에복리를가져왔는가.

그결과

8 천만엔의예산은수년이 지나지않아 3 배가되었다. 타이완경영은점령이라 1 억 6 천만엔의경비를내지에서빼앗아갔다. 2 억엔의배상금은꿈처럼사라졌다. 재정은점점문란해졌다. 수입은점점초과했다. 정부는증세에이어또증세를했다. 시장은점점곤혹스러워했다. 풍속은점점퇴폐하고죄악은나날이증가했다. 그런데도사회개혁주장은매도되지일쭙고, 교육보급시설에는냉소를보낸다. 국력이날마다없어지고, 국민의생명이날마다줄어들고있다. 만약이와같은상황이그대로수년간멈추지 않는다면, 나는동양군자국의 2500 년역사는눈 깜짝할사이의짧은꿈으로끝날수밖에없다고믿는다. 아아, 이것이우리일본에서제국주의의효과가아닌가.

그러므로나는단언한다. 제국주의정책은소수의욕망때문에다수의복리를빼앗는것이다. 야만스런감정때문에과학적진보를저해하는것이다. 인류의자유와평화를섬멸하고사회의정의와도덕을살해하여세계문명을쳐부수는파괴자일뿐이다.

제 5 장 결론

신천지경영

아아, 20 세기신천지에서우리들은어떻게하면경영을완성할수있을까. 우리들은세계평화를바라고있다. 그런데제국주의는세계평화를교란한다. 우리들은도덕의발달을바라고있다. 그런데제국주의는도덕의발달을말살한다. 우리들은자유와평등을바라고있다. 그런데제국주의

의어질고의로운지사志士仁人들은, 트란스발의승리와부활을기원하고필리핀의성공과독립을빌었다. 그적국인영국인가운데그런사람이있다. 그적국인미국인가운데그런사람이있다. 애국심은과연그것을가능하게할수있을까.

지금의애국자나국가주의자는십중팔구트란스발을위해기도하는영국인을애국심이없다고매도할것이다. 필리핀을위해기도하는미국인을애국심이없다고매도할것이다. 맞다. 그들에게는어쩌면애국심이없는것이다. 하지만고결한동정, 측은, 자선의마음은확실히여기에있다. 그렇다면애국심은우물에빠진아이를구하는저변의인심과일치하지는않는것같다.

그렇다. 나는애국심이순수한동정심과연민이아님을슬퍼한다. 애국심이사랑하는것은자기나라땅에만정된다. 자기나라사람에만정된다. 다른나라를사랑하지않고단지자기나라를사랑하는사람은타인을사랑하지않고다만자기한몸을사랑하는사람이다. 화려한명예를사랑하는사람이다. 이익의독점을사랑하는사람이다. 공공이라고할수있는가. 사私が아니라고할수있는가.

망향심望郷心

애국심은또한고향을사랑하는마음과닮았다. 고향을사랑하는마음은소중하다. 그러나또한몹시경멸할만한것이다.

타향에대한증오

누가어릴적죽마에채찍질하던시절에진정으로고향의무슨산무슨강을사랑해야한다고깨달았겠는가. 그들이회토망향懷土望郷의정을일으키는것은실로이향타국이있음을깨달은뒤가아니겠는가. 동서로떠돌다가군센기상이몇번뀔이고점점인정의냉혹함을깨달을때, 인간은청춘의유쾌함을떠올리고옛동무와뛰놀던고향에대한그리움이절실해진다. 풍토가대단히몸에맞지않고음식이전혀입에맞지않으며자신의생각을털어놓을벗이없고부모와처자식의근심을어루만지지못하면, 고향을그리는마음이절실해진다. 고향이사랑스럽고숭고하기때문에생각한다기보다는단지타향이혐오스럽고꺼려지기때문이다. 고향에대한순수한동정심과연민이아니라타향에대한증오다. 실의와역경에빠진사람들은대개모두그렇다. 그들이타향을증오하지않았다면그다지고향을사모하지도않았을것이다.

비단실의에빠지거나역경에처한사람뿐만아니라득의양양하여마음먹은대로잘되는사람에게도망향심이있지않느냐고그들은말한다. 그렇다. 정말로망향심은존재한다. 그런데득의만만하사람이고향을사모하는마음은더욱경멸할만한것이다. 그들은고향의늙은부모나지인들에게득의만만함을과시하기를바랄뿐이다. 고향에대한동정심과연민이아니

라자기한몸의허영이다. 과장이다. 경쟁심이다. 옛말에이르기를“부귀하여고향에돌아가지않으면비단옷을입고밤에걷는것과같다”고했다. 이한마디는그들이품은경멸할만한가슴밑바닥의비밀을설파하여불을 밝히는것처럼보이지않는가.

대학을우리지방에세우거나철도를우리지방에 깔았으면하는데, 이것은아직괜찮다. 심지어총무위원을우리현에서내거나대신大臣을우리주州에서냈으면하고들떠든다. 그들은자기한몸의이익이나허영을외면하고진정으로고향에대한동정심과자애로운언민의마음에서그러는것일까. 유식한자나고결한신사여, 이에대해추호의모멸감도없는가.

천하의가련한벌레

그렇다. 애국심이방향의정과원인이나동기가같다면, 우예虞芮의싸움이애국자의바람직한표본인가. 촉만觸蠻의싸움이애국자의바람직한비유인가. 천하의가련한벌레인가.

허과허영

여기서생각해보자. 덴구담배天狗屋의이와야마쓰헤이씨가‘국익의우두머리’라고떠들어대는것을비웃지마라. 그가동궁결혼기념미술고간에 1 천엔을기부하기로약속하고그것을지키지않은것을비웃지마라. 천하의애국자와애국심은이와야씨와단지오십보백보의차이일뿐이다. 애국심광고는단지자기한몸의이익을위한것일뿐, 과장을위할뿐, 허영을위할뿐이다.

3

로마의애국심

“당파는없다. 다만국가가있을뿐.”

“Then none was for a party, then all were for the state.”

이것은로마의시인이과장해서국가를찬미한말이다. 하지만어찌알겠는가. 이는당파를이용하는지혜가없었기때문일뿐이다. 국가가존재하기때문이아니라적국과적수가있기때문일뿐이다. 적국과적수를미워해야한다는미신이있었기때문일뿐이다.

로마의빈민

우리들은알고있다, 당시로마의빈민인다수의농민이소수의부유층과함께, 또는부유층을따라서국가를위하여전장에나선것을. 우리들은또한알고있다. 그들이적수와맞서서용맹분진勇猛奮進전쟁터에서자기몸을돌보지않았고충의가진실로감탄할만했던것을. 우리는또한알고있

제국주의의현재와미래

이상과같이보면, 제국주의의현재도미래도예측곤란한것은아니다. 그것은요컨대경멸스러운애국심을만족시키기위하여협오스러운군국주의로추진하는일정한정책을부르는명칭에불과하다. 그결과곤타락과멸망뿐이다.

그들의대제국건설은필요가아니라욕망이다. 복리가아니라재해다. 국민적팽창이아니라소수인간의공명과야심의팽창이다. 무역이아니라투기다. 생산이아니라강탈이다. 문명을뿌리내리게하는것이아니라다른문명을괴멸하는것이다. 이것이어찌사회문명의목적인가. 국가경영의본지인가.

이민을위해서라고말하지말라. 이민은영토확장이필요하지않다. 무역을위해서라고말하지말라. 무역은결코영토확장이필요하지않다. 영토확장을필요로하는것은오로지군인과정치가의허영심뿐이다. 금광과철도의이익을쫓는투기꾼뿐이다. 군수를공급하는어용상인뿐이다.

국민의존엄과행복

특히국민의존엄과행복은결코영토의위대함에있는것이아니라, 높은도덕수준에있다. 무력의위대함에있는것이아니라이상的高상함에있다. 군함과병사가많음에있는것이아니라의식주생활의풍요로움에있다. 영국의전통적존엄과행복은방대한인도제국을영유하는데있는것이아니라, 오히려한사람의세익스피어를가진점에있다는것은칼라일이말한대로다.

독일國國을크게, 독일인을작게

로버트모리어경 (Sir Robert Burnett David Morier, 1826~1893) 은예전에비스마르크를비평하며말했다. 그는독일을크게만들었다. 그렇지만독일인을작게만들었다. 그렇다. 영토의위대함은대개의경우국민의위대함과반비례한다. 왜냐하면그들의대제국건설은오로지무력의팽창이기때문이다. 야수적본능의팽창이기때문이다. 그들은나라를부유하게만들려고인민을약화시키고, 국광國光과국위를빛내기위하여인민을부패하고타락하게만든다. 그러므로제국주의가나라를크게하고인민을작게한다고일컫는것이다.

한때의물거품

국민이작아지고말았는데국가가어찌성대할수있겠는가. 성대한것처럼보이는것은요컨대한때의물거품에불과하다. 태풍이한번지나가면구름이나안개와마찬가지로흔적도없이사라지는것은예로부터역사가명확히보여준다. 그럼에도불구하고슬프게도세계각국은경쟁적으로이

그렇다. 영국이 예전에 무력적 허영에 취해 항상 대륙 각국과 교섭에만 열중했다고 한다면, 어찌 오늘날의 성대를 누릴 수 있었겠는가. 아니, 오늘날의 성대조차도 장래에 국기와 무력의 영광을 위하여 각 식민지에 불리함과 위험을 안겨주어 정신적 연대를 잃게 하는 행동을 강요한다면, 나는 대영 제국의 존재는 실로 시간 문제라고 믿는다.

지금 체임벌린의 억누를 수 없는 야심은, 피트, 디즈레일리의 의봉을 이어 이 평화로운 대국민을 이끌어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나쁜 술에 취하게 만들고 예로부터 이어져 온 무력적 제국 멸망의 전철을 밟게 하고 있다. 나는 이 명예 있는 국민을 위하여 깊이 유감스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키플링과 헨리

국명을 안달하는 군인과 정치가, 뜻밖의 이익을 좇는 투기꾼은 아직 어느 정도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학식이 높아 국민의 정신적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문사나 시인이 모두 나서 무력 확장을 앞장서서 외치는 데 이르렀다면 탄을 금할 길이 없다. 영국에서 키플링이나 헨리 등이 가장 두드러진 예다.

제국주의는 사냥꾼의 생계

그들은 야수 같은 애국자가 먹이를 뒤지는 것을 보고 찬미하며 말한다. 국기의 영광이다. 위인의 공로가 있는 사업이다. 국민적 사상을 환기한다. 누가 세실 로즈가 우리 영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겠는가. 누가 키치너의 공적을 기리지 않겠는가. 전자는 우리 제국을 위하여 수천 킬로미터의 영토를 확장했고, 후자는 하르툼의 국치를 씻고 문명과 평화로 야만적이고 미개한 습속을 개선했다고 한다. 제국주의의 목적이 정말로 야만인을 토벌하고 섬멸하여 문명과 평화의 정치를 시행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제국주의의 생명과 활력이 지속되는 것은 오로지 야만인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뿐일 것이다. 사냥꾼의 생계가 유지되는 것은 부근의 산과 들에 짐승들이 떼지어 돌아다니는 기간에 지나지 않는다.

남아프리카가 완전히 평정된다면 로즈는 나아가 어디에서 제 2의 남아프리카를 찾으려 할 것인가. 수단은 이미 정복되었다. 키치너는 나아가 어디에서 제 2의 수단을 찾으려 할 것인가. 만약 토벌할 야만인이 없어지면 그들은 국기의 영광을 잃는 것이다. 국민적 사상은 소멸해 간다. 위인의 공로가 있는 사업은 행방을 모르게 되는 것이다. 덧없는 것이 제국주의의 전도가 아닌가.

호언장담하며 국민의 호전심을 선동하는 키플링, 헨리의 사상이 내게는 아이들의 장난처럼 보인다. 사회문명의 진정한 진보와 복리를 원하는 자는 명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다. 그들이 다행히 승전하여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을 때는 종군하는 동안에 진빛 때문에 곧바로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아라, 전사 중에 부자들의 발이랑은 항상 하인과 노예가 경작하고 개간했지만, 빈자의 발은 완전히 황폐해져 잡초만 무성해진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그리하여 빛을 지고 곁길 풀려가서 노예가 된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그들은 로마의 적국과 적수를 증오했다. 하지만 적수가 그들에게 재난을 끼쳤다고 해도, 그것은 결코 동포인 부자들이 끼치는 재난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적수 때문에 자유를 빼앗겨야 한다. 재산을 빼앗겨야 한다. 노예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동포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그들은 여기에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얼마나 바보인가

부자들은 싸우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노예와 하인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빈자는 아무 것도 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위하여 싸웠을 뿐이다. 그들은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노예 신분으로 떨어지더라도, 여전히 적수를 토벌했다는 과거의 허영을 추억하고 감동하며 만족해서 과시하는 자들이었으니, 아아 얼마나 바보인가. 고대 로마의 애국심은 실로 이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스의 노예

고대 그리스 농노인 헬롯 Helot 을 보라. 유사시에는 병사가 되고 평상시에는 노예가 되었다. 그들은 지나치게 강건하거나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항상 주인에게 살육당했다. 더욱이 그들은 주인을 위해 싸울 때에는 충의가 바랄 바가 없었고 용감하기 이를 데 없어서, 일찍이 한번도 창을 거꾸로 들고 자유를 얻으려고 한 적이 없었다.

미신적 애국심

그들이 그러한 까닭은 무엇인가. 오로지 외국과 외국인, 즉 적국과 적수를 증오했고 토벌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믿었기 때문이다. 최고의 영광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허세를 물렸기 때문이다. 허영을 물렸기 때문이다. 아아, 미신, 그들의 애국심이라는 과장되고 허영에 넘치는 미신의 견고함은, 부패한 신수 神水를 마시는 천리교 天理敎 신도보다 지나치다. 해독 또한 이보다 더하다.

애증의 양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들이 적수에게 품은 심각한 증오심을. 아마도 결함 있는 인간, 야수에 가까운 인간은 아무래도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박애하지 못할 것이다. 원시 시대 이래 애증의 양면은 항상 새끼 줄처럼 서로 얽히고 쇠사슬처럼 서로 이어져 있다. 저 야수를 보라.

그들은서로의심하며같은무리를잡아먹었다. 그런데한번도본적이없는
 자를만나면갑자기두려움에휩싸여공황恐慌에빠지는데, 두려움과공황
 은곧바로시기와증오로바뀌고, 시기와증오는다시포효가되고공격이되
 어, 전에서로잡아먹던같은무리는오히려서로뺏겨공동의적에맞서싸
 운다. 그들이공동의적을상대할때같은무리끼리는친목상태를드러내야
 했다. 그들야수는애국심이있었는가없었는가. 고대인류의야만적생활
 이어찌이와크게달랐겠는가.

야만인은같은무리가서로단결하여자연과싸웠다. 다른종족과싸웠
 다. 그들은애국심이있었다. 하지만깨달아야한다. 그들의단결이나친목
 이나동정은다만공동의적을상대한데서유래한것임을. 다만적수에대한
 증오의반동임을. 같은병을앓고나서비로소상련의마음이생긴것임을.

호전적인마음은동물적천성

그러므로애국심은외국과의국인토벌을명예로여기는호전적인마음
 이다. 호전적인마음은동물적천성이다. 동물적천성이바로호전적애국
 심이다. 이것은석가도그리스도도배격했으며문명의이상과목적에모순
 되는것이아니겠는가.

그런데더욱솔프게도세계인민은여전히동물적천성의경쟁장에서
 19 세기를보내고, 나아가여전히같은상태로 20 세기의신천지에머물려
 고한다.

적자생존의법칙

사회가적자생존의법칙에따라점차진화하고발달하여통일의경계와
 교통의범위도마찬가지로확대됨에따라, 공동의적이었던다른종족, 다
 른부락사람들은점차줄어증오의목적도사라진다. 증오의목적이없어지
 면친목으로맺은목적도사라진다. 여기에서한국가, 한사회, 한부락을사
 랑하는마음은변해서단지한몫, 한집, 한당파를사랑하는마음이된다. 예
 전의종족간, 부락간의야만적인호전적천성은, 결국변해서개인간투쟁
 이되었다. 당파간알력이되었다. 계급간전투가되었다. 아아, 순결한이
 상과고상한도덕이성행하지않고동물적천성이아직제거되지않은동안
 은, 세계인민은결국적을만들수밖에없고증오할수밖에없고전쟁할수밖에
 없다. 그리하여이것을애국심이라고이름붙이고명예의실천이라고일
 권게되었다.

자유경쟁

아아, 19 세기의서구문명이여. 한편으로는격렬한자유경쟁으로인
 심을더욱냉혹하고무정하게만들었고, 한편으로는고상하고정의로운이
 상과신앙이널리땅을쓸었다. 우리문명의전도가정말로소름끼치지않을
 수없다. 그리고눈가리고아웅하는정치가나공명을쫓는모험가나뜻밖의

불리함과위험

영국제국주의자들이영국국민에게끓임없이방비가완전하지못함을
 들어걱정시키는이유는영토가너무크기때문이어닐까. 생각해보기바란
 다. 각식민지인민은모두애초에모국에서생활할수없어서, 자유를얻기
 위해, 의식주를얻기위해천리타향으로이주한사람들이다. 그리하여이
 제각자가번영된행복한생활을할수있게되었다. 무엇이걱정되어새삼스
 래대제국통일이라는미명하에모국의간섭과질곡을감수하지않으면안
 되는가. 모국을위하여막대한군비와병역을부담하지않으면안되는가.
 항상모국과함께서구각국의분쟁에말려들지않으면안되는가. 이보다더
 불리하고위험한일은아마도없을것이다.

소소영국당시의무력

특히무력이쓸모없는죄악이라는것은앞에서이미언급했다. 하지만
 가령자국의방비가필요불가결한것이라고하자. 방비의완벽함과무력의
 위세는결코영토의광대함에서나올수있는것이아니다. 보라. 펠리페 2
 세가이끄는에스파냐대제국을격파했을당시영국은아직소영국 little
 England 이지않았는가. 루이 14 세의프랑스대제국을격파했을당시의
 영국도아직소영국이아니었다.

영국의변영원인

그렇다. 그들의무력이찬란한광채를뽐어낸것은그야말로소영국일
 때였다. 그들제국주의자가진정으로방비가완전하지않음을걱정한다
 면, 왜단호히각식민지의독립을허락하지않는가. 다행히이대로실현된
 다면그들은비로소두발뺨고잘수있고, 동시에각식민지도마찬가지로오
 히려자유와복리를얻은것을진심으로기뻐할것이다.

생각해보라. 지금까지영국의변영과팽창은결코무력에서나온것이
 아니라풍부한철과석탄에힘입은것이다. 무력을앞세운침략과약탈에서
 나온것이아니라평화로운제조업덕분이었다. 그사이, 그들이길을잘못
 들어서야수적본능을굳히고고대제국주의의방식을흉내내어식민지를
 티무르식경제수단으로취급한적이없었던것은아니다. 그러나그들은이
 때문에미합중국의이반이일어나자넌더리가나서생각을고치고방도를
 바꾸어각식민지에자치를허락했다. 그러므로그들의광대한영토는사실
 제국주의자가일컫는제국을형성한것이결코아니다. 다만혈맹과언어,
 문화를같이하여변함없는진정한동정심이있고무력부문의상호이익이
 다르지않기때문에, 그연합은영구한운명을지속하고무한한번영을가져
 온것이다.

영국제국의존재는시간문제

면이것은자기손으로무력의대부분을부수는것을유쾌하게여기는것이
다. 기타각국의관계가대개이런식이다.

고객의살육

만약고객을살육하고재화를빼앗고는재산을축적하는비결을알았다
고한다면천하만인이누가비웃지않겠는가. 서구각국이오로지다른나라
를괴롭혀서자기나라의이익을도모하고자하는것이마치상인의어리석
음을닮지않았는가.

나는지금시장확장경쟁이마치무력전쟁과같음을슬퍼한다. 그들은
남을괴롭히기위해서우선자신이괴로움을당하고있다. 남의이익을감아
먹기위하여우선자신의이익을감아먹을수밖에없다. 그결과다수국민은
이때문에곤궁해지고기아에허덕이며부패하여멸망한다. 그러므로나는
이렇게말하고싶다. 제국주의경제는야만적경제다. 티무르식경제다. 부
정不正이다. 불의다. 비문명적이다. 비과학적이다. 정치가가눈앞의헛
된명예를쫓고투기꾼이뜻밖의이익을손에쥐기위함일뿐이다.

일본의경제

되돌아와서우리일본의경제실태를보라. 이보다더욱심하다. 우리일
본은무력을가지고있다. 그것으로국기를해외에세울수있을것이다. 우
리국민은이국기아래투입할수있는자본을얼마나가지고있는가. 이시장
에출하할수있는상품을얼마나제조할수있는가. 일단영토를확장하면무
인들이점점발호할것이다. 정부비용이점점증가할것이다. 자본이점점
결핍되어생산이점점위축될것이다. 우리일본이제국주의를받들고맹목
적으로나아간다면그결과는이대로비참한것이될뿐이다.

타의추종을불허하는어리석음

서구제국주의자들은자본과잉과생산과잉에구실을돌리고있지만,
일본의경제사정은이것과완전히다르다. 서구의대제국건설은부패와영
락을향하여나아가는것은두말할필요도없지만, 그래도아직몇년간은국
기의허영을자랑할수있을것이다. 우리일본에이르면제국을건설한대도
어찌능히하루라도유지할수있겠는가. 그런데도멋대로다수군대와군함
을끌어안고목청껏외치면서제국주의가아니면안된다고말한다. 우리일
본제국주의자의어리석은정도는정말로타의추종을불허한다.

5

영국식민지의결합

영국제국주의자는또한, 우리군대를완전히하고자한다면식민지전
체의강고한통일과결합이필요하다고말한다. 이것은호전적애국자가가
장좋아하는주장이다. 하지만아주조소를금치못할논의다.

이익을추구하는자본가는이것을보고바로절규하며“주위를둘러보라,
엄청난적들이쳐들어온다. 국민은개인간투쟁을멈추고국가를위하여결
합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들은개인간증오심을외부로돌려서자기들
의이익이되도록하고자한다. 그리고이에따르지않는자가있으면꾸짖으
며비애국자, 국적國賊이라고한다. 모른단말인가, 제국주의의유행은
실로이러한수단에서부터비롯된것을. 국민의애국심은환언하면동물적
천성의도발에서나왔음을.

4

서양인 ·오랑캐에대한증오

자기를사랑하라. 타인을증오하라. 동향인을사랑하라. 타향인을증
오하라. 신국神國이나중화中華를사랑하라. 서양인이나오랑캐를증오
하라. 사랑하는사람을위하여증오하는자를무찌르라. 이것을일컬어애
국심이라고한다.

그렇다면애국주의는가없는미신이란가. 미신이아니라면호전적
인마음이다. 호전적인마음이아니라면허위광고이고상품이다. 그래서
이주의는항상전제정치가자기의명예와야심을달성하는이기利器와
수단으로사용한다.

이것을단지그리스, 로마의옛꿈으로여겨서는안된다. 애국주의가근
대에유행하고이용되는것은상고시대나중세시대보다더욱심하다.

메이지성대聖代の애국심

상기하라. 고故모리타시켄 (森田思軒, 1861~1897) 씨가글을기
고하여황해黃海의영험한매가영험하지않다고주장하자, 천하의모든
사람들이그를비난하여국적으로삼았다. 구메구니타케 (久米邦武,
1839~1931) 씨는신도神道는제천祭天의오랜습속이라고논한일때문에
교수직을박탈당했다. 사이온지공장 (西園寺公望, 1849~1940) 이세계
주의적교육을하려고하자마자문부대신의지위가위태로워졌다. 우치무
라간조씨가칙어의예배를거부하자교수직을박탈당했다. 오자키유키오
(尾崎行雄, 1858~1954) 씨가공화共和라는말을입에담자마자장관직
을빼앗겼다. 그들모두가대단히불경스러운사람으로매도되었고비애국
자로벌을받았다. 이것이메이지라는성대의일본국민에게서발현된애국
심이다.

국민의애국심은일단선호하는바를거역하면남의입에재갈을물리고
남의팔을누르고남의사상조차도속박한다. 남의신앙조차도간섭한다.
역사평론도금지할수있다. 성서연구도방해할수있다. 모든과학도파괴

할수있다. 문명의도의는이것을치욕으로여긴다. 그런데도애국심은이것을영예로알고공명이라한다.

영국의애국심

비단일본의애국심만그러할까. 영국은근대들어대단한자유나라라일컬어진다. 박애의나라라일컬어진다. 평화의나라라일컬어진다. 그와같은영국조차도예전에애국심이흘러넘쳤을때에는자유를부르짖는자, 개혁을청원하는자, 보통선거를주장하는자들은모두반역으로몰리지않았던가. 국적으로벌을받지않았던가.

영국-프랑스전쟁

영국인의애국심이크게발양되었던최근사례는프랑스와벌인전쟁만한것이없다. 이전쟁은 1793 년대혁명때발발하여얼마간계속되다가 1815 년나폴레옹의몰락으로대단원을맞는다. 영국인들은전쟁이가까워지자그사상도마찬가지로오늘날의사상과거리가별로없었고, 애국심도유행하는사정과방법이오늘날의애국주의와그다지다르지않았다.

이른바거국일치舉國一致

프랑스와의전쟁. 단지이한사건, 이한마디가있을뿐이다. 원인이무엇인지몰지않는다. 결과가무엇인지논의하지않는다. 이해득실을논하지않는다. 시시비비를가리지않는다. 그러면반드시비애국자로처벌받을것이다. 개혁정신이나항쟁의마음이나비평정신은한때완전히정지되고, 아니정지당하여국내의당쟁은거의자취를감추고말았다. 콜리지(Samuel Coleridge, 1772~1834) 같은사람조차초기에는전쟁을비난했지만마침내전쟁이국민을일치단결시킨것을신에게감사하기에이르렀다. 그리고폭스(Charles Fox, 1749~1806) 무리가변함없이평화와자유대의를지지했으나, 의회의대세를바꿀수없음을알고의사당에나가지않은일은있었지만, 의사당에서는모든당파적토론이사라져버렸다. 아아, 당시의영국은거국일치, 우리일본의정치가나책략가가즐겨입에담는‘거국일치’, 로마시인이노래한“단지국가가있을뿐”이성행했다.

하지만생각해보라. 이때모든영국민의가슴속에무슨이상이었는가. 무슨도의가있었는가. 무슨동정이있었는가. 무슨‘국가’가있었는가.

영국민모두는, 광기에빠진영국민의모두는오로지프랑스에대한증오만을품고있었다. 오로지혁명에대한증오뿐이었다. 오로지나폴레옹에대한증오뿐이었다. 적어도일말의혁명적정신이나프랑스인의이상과관련한사상이있었는가. 그들은오로지이것을혐오할뿐만아니라알다투어모욕하지않았는가. 단지모욕할뿐만아니라때를지어공격하고처벌하는데전력을다하지않았는가.

이대로만진행된다면자본가의경쟁은없다. 어찌이익을독점할필요가있겠는가. 이익독점이없어지면, 다수의의식주는공평히분배될것이다. 다수의의식주가충족된다면어찌과잉생산에종사하겠는가. 생산과잉의걱정이없어지면, 어찌국기의위엄을빌려티무르식경제를행할필요가있겠는가. 이것이문명적인경제고, 과학적인경제며, 또한진정으로도의적인경제다.

파산과타락이있을뿐

그런데도시구의정치가나상공업자는이렇게하지는않고오로지한때의허영을자랑하며영원히이익을독점하고자하여해외영토를확장하는데막대한자본을투입하는것이흐르는강물처럼멈출줄을모른다. 그리하여그결과는어떠한가. 정부재정은점점팽창하고, 자본은점점흡수된다. 상공업자는이익에광분하여점점격해진다. 분배는점점불공평해진다. 이렇게영토확장이점점확대되고무역액이점점증가하면국민다수의곤궁은갈수록심해질것이다. 다음에오는것은곧파산과타락뿐이다.

유목적경제

설령영토확장비용때문에재정이고갈되고파산에까지이르지않는다하더라도, 각국의경쟁이오늘날과같이격렬하다면, 이른바신시장개척은장래에과연어느정도의여지를남기고있을까. 여지가없어지면, 곧앞아서굶어죽을수밖에없다. 굶어죽지않으려면각국이서로싸워서빼앗지않으면안된다. 물과풀을찾아전전하는유목민은물과풀이없어지면당장에쓰러질수밖에없다. 쓰러지지않으려면서로죽이고빼앗을수밖에없다. 제국주의경제는곧유목적경제인가.

그렇다. 개척할수있는시장이부족하기때문에각국이이미서로빼앗을조짐을 보이고있다. 영국인은, 독일은우리시장의적이다. 격파하지 않으면안된다고말한다. 독일인은, 영국인은우리의경쟁자다, 압도하지 않으면안된다고말한다. 그리하여양국은전쟁준비에여념이없다. 기괴하기이러데없다. 그들의통상과무역은상호복리에있는것이아니라, 남을손상시킴으로써어떻게든이익을챙기는데있다. 평화생산을경쟁하는것이아니라무력쟁탈에전념하는데있다.

영국대독일의무역

특히영국은현재독일무역의최대고객이아닌가. 독일은현재영국무역의고객으로서 3 위아래로내려가는일이없지않은가. 양국무역은최근 10 년동안이미수천만엔증가했다. 영국의독일무역액은오스트레일리아무역액과비교해크게손색이없으며, 또한캐나다와남아프리카를합친것보다훨씬많다. 독일이영국자본을수입하여이용하고있는액수역시결코적지않다. 만약그들이타국을격파하고압도하는것을유쾌하게여긴다

나는세계의교통이점점편리해지기를바란다. 세계무역이점점번영하기를바란다. 하지만영국상품의시장이반드시영국국기아래있어야만하며, 독일상품의시장이반드시독일국기아래있어야만하는이유가과연 어디에있는가. 우리의무역이무력이나폭력으로강요하지않으면이루어질수없다는이유는과연어디에있는가.

암흑시대의경제

암흑시대의영웅호걸은자국의부강을바라기에항상타국을침략하여재부를약탈하고조세를징수했다. 칭기즈칸, 티무르의경제는이와같은 것이었다. 만약제국주의자가오로지다른미개한백성을압도하여토지를 빼앗고그백성을신하로삼아이들에게매매를강요하는것을경제원칙으로삼는다면, 암흑시대의경제와무엇이다른것일까. 이것은문명의과학이절대로허락하지않는것이아닌가.

생산과잉

그들은어떠한이유로신시장개척을필요로하는것일까. 그들은자본과잉과생산과잉으로괴로워하고있기때문이라고말한다. 아아, 이것은무슨잡고대인가. 자본가와공업가가생산과잉에괴로워하고있다고외치는반면에, 보라, 수천만하층인민은항상의식주부족을호소하며울부짖고있지않는가. 생산이과잉인것은정말로수요가없기때문이지아니라, 다수인민의구매력이부족하기때문일뿐이다. 다수인민의구매력이부족한것은부의분배가공평성을잃고빈부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기때문일뿐이다.

오늘날의경제문제

그리고생각해보라. 서구에서빈부격차가점점확대되고부와자본이점점소수의손에축적되어다수인민의구매력이크게약화된까닭이무엇인가. 다름아니라지금의자유경쟁제도의결과로자본가와공업가가자본이익을터무니없이독점하고있기때문이지아닌가.

사회주의제도의확립

그러므로서구에서오늘날의경제문제는다른미개인민을무릎꿇게하여상품소비를강요하는것보다우선자국내다수인민의구매력을증진시키는것이아니면해결할수없다. 자국의구매력을증진시키려면자본이익을터무니없이독점하는것을금지하고, 그것으로일반노동에대한이익배분을공평히하는것이아니면안된다. 그리고분배를공평하게하려면현재의자유경쟁제도를근본적으로개조하여사회주의제도를확립하는것이아니면안된다.

죄악의최고조

이로써깨달을것이다, 외국에대한애국주의의최고조는내치內治에서죄악의최고조를미한다는것을. 그리하여전쟁중에크게넘쳐흐른애국광들의애국심이전후에어떠한상태가되었는지를살펴볼필요가있다.

전후의영국

전후의영국은프랑스에대한증오의열광이서서히식으면서군비지출을중단했다. 대륙에서전쟁을하는동안공업계가교란되었기때문에특히영국이요청받았던수요는정지되었다. 영국의공업과농업은갑자기일대불경기에휩싸였다. 그러자대다수하층인민의공핍과기아가뒤를이었다. 이시기에부호자본가에게과연한점의애국심이존재했던가. 거국일치적통합과친목의마음은여전히존재했던가. 그들은동포가공핍과기아에빠지고밀바닥으로전락하는것을마치원수를보듯하지않았던가. 그들이하층민을증오한것은프랑스혁명이나나폴레옹을증오한것보다훨씬심하지않았는가.

피털루

피털루학살에이르면이를갈만하다. 그들은나폴레옹군을위털루에서몰리치고얼마되지도않았는데, 의회개혁을요구하며피터스광장에집결한다수의노동자를유린하고학살하지않았는가. 사람들이위털루전투에빋대어피털루라부르는것이이것이다. 위털루에서적군을몰리친애국자는이제돌변해서피털루에서동포를학살한다. 애국심이라는것은정말로동포를사랑하는마음인가. 일치된애국심, 통합된애국심은전쟁이일단끝나면국가와국민에게어떤이익을주는가. 보아라. 적수의머리를깎아예봉은곧바로동포의피를빨려고한다.

콜리지는전쟁때문에국민이일치단결한것을신에게감사했다. 그러나여기에이르러일치된자는과연어디에있는가. 증오의마음은증오를낳을뿐이다. 적국을증오하는마음은곧바로국민을증오하는동물적천성이될뿐이고, 위털루의마음은곧바로피털루의마음이될뿐이다. 허위인가, 애국심의결합은.

5

눈을독일로돌리자

잠시영국을떠나눈을독일로돌리자. 고故비스마르크공은실로애국심의화신이었다. 독일제국은애국신神이모습을드러낸신령스러운장소다. 애국종宗의영험이얼마나신통한지를알고자한다면일단이신령스러운장소에발을들여놓지않으면안된다.

우리일본의귀족이나군인, 학자를비롯하여거의세계만국의애국주의자, 제국주의자가자신의일처럼따르며함께기뻐하고매우동경하고사모해마지않는독일의애국심은고대그리스나로마나근대영국의애국심에비해과연미신이아닌가. 과장된허영이아닌가.

비스마르크공공

고비스마르크공공은실로희대의호걸이다. 그가정권을잡기전에는복잡하게분립해있던북부게르만각국은, 언어가같은국민은반드시결합하지않으면안된다는제국주의자의눈으로보면, 실로가없는존재였다. 그리하여각국을부수어한덩어리로만든비스마르크공공의대업은역사에찬란한빛을남겼다. 하지만깨닫지않으면안된다. 제국주의자들이제국을결합하여통일하는목적은결코실제로제국의평화와이익을원해서가아니라단지무장의필요성때문임을간과해서는안된다.

일찍이자유평등의도의를깨달아프랑스혁명의장관을선망했던인사들중에는야만적인싸움을멈추고협동과평화의이익을얻거나외적의침공에대비하기위하여게르만의결합과통일을희망한사람이있었던것은분명하다. 이것은참으로그럴만하다. 하지만실제역사는결코이런종류의희망에맞출수없는것을어찌하겠는가.

게르만통일

만약게르만통일이진실로북부게르만각국의이익을위하여이루어진것이라면, 그들은왜주민다수가독일어를쓰는오스트리아와결합하지않았는가. 그이유는다른데있지않다. 비스마르크일파의이상이결코일반독일인의형제애에있지않았기때문이다. 각국의공통된평화와복리에있지않았기때문이다. 오로지프로이센자체의권세와영광에있었기때문이다.

쓸모없는전쟁

철두철미한호전정신을만족시키는수단으로통합과제휴를추구하는것이인간의본성이다. 갑의붕우朋友는을의원수이기때문이다. 안녕을바라기때문이다아니라, 패권을과시하고자해서이다. 존재비스마르크공은능히이러한인정에통달했다. 그는실로국민의동물적천성을이용해서수완을발휘했던것이다. 달리말하면그는국민의애국심을선동하기위하여적국과싸운것이다. 자기에게반대하는모든도나평론을복종시키고자기가바라던애국증을창건하기위하여쓸모없는전쟁을도발한것이다.

그렇다. 게르만의통일자, 동물적천성의사도, 철혈정책의조사祖師가심오한모략을세워첫번째로착수한것은, 가장약한이웃나라와의전쟁이었다. 그리고이전쟁에서승리하자, 국민중미신이나허영, 동물적천성

계가있는반면에인구증가는무제한의기세를 보이고있다. 만약이민이절대로자국영토가아니면안된다고한다면곤란하고급박한상황이반드시닥칠것임에틀림없다.

생각해보라. 영국, 독일제국은처음에아시아, 아프리카의무인지경에서영토를찾을것이다. 이것을분할할것이다. 그리고이민은결국분할한영토에가득찰것이다. 그리고또다른영토를찾아도여지가없는데까지이룰것이다. 이렇게되면그들제국은서로죽이며서로빼앗지않으면안된다. 최후에강대한무력국가가다른영토를빼앗을수있었다고가정해보자. 그영토도몇년이지나면인구과잉이될것이다. 다음에오는것은궁핍과쇠락을수박에없다. 이와같은것이곧제국주의의논리이자목적이라고한다면, 대단히비과학적이지않은가.

한편에서는프랑스도실제로왕성하게영토확장을추구해마지않는다. 하지만프랑스의인구는결코증가하지않고빈민이비교적적은것을보면, 어찌이민의필요때문에일어난일이라할수있겠는가.

이제미국도마찬가지로영토확장을추구하고있지만, 이민의필요에서나온것이아님은명백하다. 미국영토는광대하고천연자원이풍부하며, 세계의이민이여기에모이는형국은마치백천百川이앞다투어대하大河로흘러들어가는것같은느낌이다. 영국인이주자가많을뿐아니라, 1893년부터 1897년에이르는동안외국으로이주한독일인 22 만 4 천명가운데 19 만 5 천명이미국으로향했다. 그리고스위스, 네덜란드, 스칸디나비아제국의이민도마찬가지로다수가미국으로간다. 세계의이민을병탄하는미국이어찌자국이민을장려할필요가있겠는가.

이탈리아도재화를낭비하고인간을살육하여아비시니아의광망들들에식민지를얻고자고투하고있는데, 이민은모두남북아메리카의외국국가아래로향하고있다.

커다란오해

그러므로나는단언한다. 제국주의라명명하는영토확장정책이진정이민의필요때문에일어났다고하는것은커다란오해다. 특히이민을침략의구실로삼는따위의행위는자신과타인을기만하는정도가심하므로, 마땅히일어나서는안된다.

4

새로운시장의필요

제국주의자는누구든지일제히‘무역은국기를뒤따른다’고외치며, 영토확장은자국상품을팔시장을긴급히찾아야하는필요성때문에일어났다고말한다.

증가하는한편으로재부가확실히몇십배증가한것이다. 그리하여영국, 독일제국은실로세계재부의대부분을점유한나라가아닌가.

빈민증가의원인

부富만놓고보면, 이미온세계를압도하고있다. 그런데빈민이날이 갈수록증가하는것이어찌하여인구과잉의죄인가. 생각건대원인은바로 존재하지않으면안된다. 그렇다. 빈민의증가는사실은지금의경제조직 과사회조직이불량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자본가나지주가터무니없이 이익과토지를독점하기때문이다. 그리하여재부분배의공정성을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나는진정한문명적도의와과학적지식에따라이폐인을 제거하지않으면이민과같은것은임기응변식의관장灌腸적치료에 지나지않으며, 설령온나라의인민을모조리이주시켜도빈민은결코모습을 감추지않을것이라고믿는다.

한발물러서서이민이인구과잉과빈민증가를해결할유일한구제책이라고해보자. 그렇다고과연영토를확장할필요가있는가. 대제국을건설 할필요가있는가. 그들의인민은과연자국의국기아래가아니면생활할수 없는가. 부디사실을보여달라.

영국이민의통계

영국영토의광대함은이미‘해가저물지않는다’고한다. 그러면서도 1853년부터 1897년에이르는동안에외국으로이주한영국인과아일랜드인약 850 만명가운데자국식민지로향한사람은불과 200 만명에지나 지않고, 나머지 550 만명은모두미합중국으로향했다. 1895년의영국 이주통계는다음과같다.

미합중국 195,632 명
오스트레일리아 10,809 명
영국령캐나다 22,357 명

자국영토로향하는자는영토이외의나라로향하는자에비해 6 분의 1 의비율에지나지않는다.

이민자들은자유가있는곳이면곧내고향이나다름없다. 결코모국영 토인이아닌지를문제삼지않는다. 그러므로제국주의자가이민의필요를 구실로내세우는것은전혀이유가되지못함을알수있다.

이민과영토

나는이민자재를나쁜것이라고생각하지는않는다. 적어도스파르타 인이노예 Helot 의인구증가를꺼려살육한것에비하면대단히진보한방법임을의심하지않는다. 하지만세계영토가확장할수있는것은일정한한

을기빠하는무리는앞다투어그도당이되었다. 이것이바로신독일제국의 결합, 신독일애국주의의발단이었다.

두번째로비스마르크는다른이웃나라에도전했다. 이이웃나라는이 전이웃나라보다강했다. 하지만그는적이충분히준비하지못한틈을이용 했다. 그리하여애국심이라는결합의정신은새로운전장에서왕성하게일 어났다. 이렇게온동은오로지비스마르크공의나라인프로이센과국왕 의팽창을위하여교묘하게이용되고오묘하게발휘되었던것이다.

프로이센이라는한물체

비스마르크는결코순수한정의를품고북게르만의통일을도모한것이 아니다. 그는결코프로이센이라는한물체를통합의용광로안에서녹여자 취마저없앨것을허락하지않았다. 그가허락하는것은오로지프로이센왕 국을맹주로하는통일이었다. 프로이센왕에게독일황제의영광을줄여지 게하는통일이었을뿐이다. 누가말할수있는가, 북게르만의통일이국민 운동이라고. 그들국민의허영과미신의결과인애국심은완전히한사람의 야심과공명을위하여이용된것이아닌가.

중세시대의이상

비스마르크의이상은실로중세시대미개인의이상을벗어날수없다. 그가진부하고야만적인계획으로성공할수있었던이유는, 사회의다수가 도덕적으로나심리적으로아직중세시대를벗어나지못했기때문이다. 그 려다. 다수국민의도덕은아직중세의도덕이다. 그들의심성은아직미개 인의심성이다. 단지그들스스로속이고남을속이려고근대과학의외피로 은폐한것에불과할뿐이다.

프로이센-프랑스전쟁

비스마르크는이미쓸모없는전쟁을두차례일으켰고다행히성공했 다. 그리하여세번째전쟁을일으키기위해열심히병사를기르고호시탐탐 기회를기다렸다. 기회가왔다. 그는또다시다른강국의준비가충분히않 은틈을이용했다. 아아, 프로이센과프랑스대전쟁. 이전쟁이야말로위험 한길중에서도가장위험한길이고, 흥기중에서도가장흉악한것이다. 그 러나비스마르크는대성공을거두었다.

프로이센-프랑스전쟁결과, 북게르만각국은프로이센의발아래머리 를조아리게되었다. 각국은일제히프로이센국왕의독일황제등극을봉축 해야했다. 오로지프로이센국왕을위해서다. 비스마르크의안중에있었 던것은이것뿐이었다. 어찌동맹국민의복리가눈에들어오겠는가.

그러므로나는단언한다. 독일통합은정의에따른호의나동정에서나 온것이아니다. 독일국민이시체의산을넘고피의강물을건너맹금이나야 수처럼통일을이룬것은오로지적국에대한증오심에선동되었기때문일

뿐이다. 전승의허영에취했기때문일뿐이다. 이것이대인과군자가관여할일이겠는가.

하지만국민들다수는스스로자랑하며, 세계의어느나라가우리독일국민만큼하늘의총애를입겠는가하고생각했다. 세계각국의다수도마찬가지로경탄하여, “위대하구나, 나라를이루는것은마땅히그러해야한다”고일결었다. 일본의대훈위후작조차덩달아가빠하며자신도동양의비스마르크공이되고자한다고했다. 지금까지영국의입헌정치가세계에서누리던영광은갑자기사라지고프로이센군대의검으로옅겨갔다.

애국적브랜드

국민이국위國威나국광國光의허영에도취하는것은마치개인이브랜드에취하는것과같다. 그는이미취했다. 귀가달아오르고눈이희미하고기가멧대로뻗어서체의산을넘어도그비참함을보지못한다. 피의강을건너도그부정함을알지못한다. 그리하여독의만만해졌다.

유도선수와스모선수

국민의무력이전투에뛰어나다는명성을얻는것은마치유도선수가모든기술을전수받은것과같다. 스모선수가요코즈나橫綱띠를두른것과같다. 유도선수나스모선수는단지적수를쓰러뜨릴뿐이다. 기술은여기에머물뿐이다. 만약적수가없으면무슨이익이있겠는가. 무슨명예가있겠는가. 독일국민의자랑은오로지적국을무찌르는것뿐이다. 만약적국이없으면무슨이익이있겠는가. 무슨명예가있겠는가.

유도선수와스모선수가브랜드에취해기능과역량을자랑하는것을보고도사람들이여전히그들의재주와슬기, 학식, 덕행을믿을수있겠는가. 국민이전쟁의허영에취해명예와공적을자랑하는것을보고도다른나라국민들이여전히그들이정치, 경제, 교육에서문명적복리를초래한다는것을믿을수있겠는가. 독일의철학은존송할만하다. 독일의문학은존송할만하다. 하지만나는결코독일의애국심을찬미할수는없다.

현독일황제

비스마르크공이보좌했던황제나비스마르크공자신이나모두이미과거의사람이되었다. 하지만철혈주의는여전히현황제의머리위에머물러있다. 애국적브랜드는여전히현황제를취하게하고있다. 현황제가전쟁을즐기고압제를즐기고허영을즐기는것은나폴레옹 1 세를훨씬능가하고나아가나폴레옹 3 세를훨씬능가한다. 거대한대국민은지금여전히피로써손에넣은결합과통일이라는미명하에자신들을멋대로부리는어린압제자에게만족하고있다. 그리하여애국심은여전히대단히강렬하다. 하지만어찌영원한현상이겠는가.

투어나쁜길로들어서려하고있다. 나는그들이쓰러질위험을두려워할뿐만아니라, 참으로자유와정의와인도를위하여깊이슬퍼한다.

민주당의결의

제작년가을에미국아이오와주의민주당이결의한내용은무척만족스러웠다.

우리는필리핀정복에반대한다. 왜냐하면제국주의는군국주의 militarism 를의미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군국주의는무단정치 government by force 를의미하기때문이다. 왜냐하면무단정치는합의정치 의사망의의미하고정치적·공업적자유와파괴를의미하며, 권리평등의살해와민주제도의섬멸을의미하기때문이다.

그렇다. 제국주의는도처에서이와같은부정과해독을끼치려하고있다.

3

이민의필요

영국, 독일의제국주의자들이대제국건설이필요하다고주장하는첫번째논거는이민에있다. 그들은공공연히말한다. 지금우리나라인구는해마다늘어나빈민이날이갈수록증가하고있다. 영토확장은과잉인구이주를위해어쩔수없다고한다. 언뜻대단히도리에맞는것처럼보인다.

인구증가와빈민

영국, 독일제국의인구증가는사실이다. 빈민증가역시사실이다. 하지만빈민이증가한원인을모두인구증가로돌리지않으면안되는가. 이것은한번생각해보지않으면안되는문제다. 그들말대로라면그논리는요컨대인구가많으면재부財富가적고, 인구가적으면재부가많다는것으로귀착될것이다. 절로웃음이나는이야기다. 이것은실로사회진보의대법칙을무시하는것이다. 사회과학 Social Science 을무시하는것이다. 경제의원리를무시하는것이다.

짐승이나물고기들은모두자연의음식을먹는다. 먹는수가점점많아지면음식물이점점주는것은필연의도리다. 하지만인간은생산적동물이다. 자연의힘을이용하여스스로의식주를생산할수있는지식과능력이있다. 그리고이식이나능력은해마다시대마다가공할만한속도로개선되고진보되고늘고있다. 그러므로산업혁명이일어난이후세계인구가몇배

나쁘지는 않다. 나는 결코 미국이 온갖 책략을 써서 쿠바 인민은 교사하고 선
동한 증거를 적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필리핀의 병탄

하지만 필리핀 군도의 병탄과 정복에 이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독립의 격문과 건국의 헌법을 어찌 하리

미국은 정말로 쿠바 반란자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웠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필리핀 인민의 자유를 구속함이 그리도 심한가. 정말로 쿠바의 자주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필리핀의 자주와 독립을 침해함이 그리도 심한가. 미국은 다른 나라 인민의 의지와 달리 무력과 폭력으로 강압하여 그 땅을 빼앗고 부를 갈취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문명과 자유가 빛나는 미국 건국 이래의 역사를 심하게 더럽히는 것이 아닐까. 생각건대 필리핀의 땅과 부를 병탄하는 것은 미국에게는 물론 이익일 것이다. 하지만 이익이 되니까 해도 괜찮다는 논리를 댈다면 옛날 무사의 강도짓도 이익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인가. 그들은 과연 그들 조상의 독립선언서, 건국헌법, 먼로 선언을 어디에 뺄까 쳐버리려고 하는가.

국가가 생존하려면 영토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 그들은 출병하면서 처음에 자유와 인도를 표방했다가 갑자기 돌변하여 국가 생존의 필요를 구실로 내세우고 있다. 얼마나 급속한 타락인가.

설령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영토를 확장하지 않으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위험에 빠진다고 해도 필리핀 병합에서 얻는 부와 이익은 뻔하다. 과연 미국의 위험을 구하기에 충분할까. 단지 경제적 존속을 하루 늘릴 수 있는 정도일 뿐이다. 그렇다. 쇠망은 단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들의 토지와 인구, 자본과 기업 세력이 무한함을 인식하면서도 굳이 비관적 관측을 해보았지만, 아무리 경시하려고 해도 나서는 그럴 수 없다.

미국의 위험

만약에 장래에 미국의 국가 존속에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영토가 좁아서가 아니라 영토 확장이 끊이지 않는 데 있다. 대외로 세력을 떨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내부의 부패와 타락에 위험이 있다. 시장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의 분배가 불공평한 데 있다. 자유와 평등의 멸망에 있다. 침략주의와 제국주의의 유행과 발호에 있다고 믿는다.

미국이 융성한 원인

미국이 오늘날 융성과 번영을 이룩한 원인을 한번 더 떠올려 보아도 좋다. 자유인가 압제인가. 논리인가 폭력인가. 자본주의적 세력인가 군비의 위엄인가. 허영의 팽창인가 근면한 기업인가. 자유주의인가 제국주의인가. 지금 그들은 일종의 공명과 사욕을 위해서, 애국적 열광을 위해서 앞다

근대 사회주의

보라. 애국심의 폐해는 절정에 달했다. 맥베스의 포악함이 극에 달했을 때 숲이 움직여 다가온 것처럼, 가공할 만한 강적은 이미 휴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온 것이 아닐까. 이 강적은 미신적이지 않고 이론적이다. 중세적이지 않고 근대적이다. 광기적이지 않고 조직적이다. 그 강적의 목적은 애국종과 애국종이 벌인 사업을 모조리 파괴하는데 있다. 이것을 이름하여 근대 사회주의라고 한다.

고대의 야만적이고도 광적인 애국주의가 근대 문명의 높고 원대한 도의와 이상을 굴복시켜 밀어내는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비스마르크 공당시와 변함없이 없을지는 금세기 중엽에 결판이 날 것이다. 그래도 독일의 사회주의가 융성하게 일어나 애국주의를 향해 격렬히 저항을 한 것을 보면, 전승의 허영과 적국의 증오에서 태어난 애국심이 국민 상호 간의 동정이 나박애심에 추호도 도움이 되지 않음을 어찌 깨닫지 못하겠는가.

철학적 국민

아아, 대단히 철학적인 국민으로 하여금 각 중정치적 이상 가운데 대단히 비철학적 사태를 연출하게 한 것은 비스마르크 공이 저지른 최대의 죄악이다. 만약 비스마르크 공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비단 독일 뿐만 아니라 독일을 최고로 삼는 유럽 각국의 문학, 미술, 철학, 도덕이 얼마나 진보하고 얼마나 고생했겠는가. 어찌 울부짖으며 서로 물어뜯는 들개나 늑대의 모습이 20 세기의 오늘에 나타났겠는가.

6

일본 황제

일본의 황제는 독일의 어린 황제와 다르다. 전쟁을 좋아하지 않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신다. 압제를 좋아하지 않고 자유를 소중히 여기신다. 일국을 위하여야만적인 허영을 기뻐하지 않고 세계를 위하여 문명의 복리를 바라신다. 결코 지금의 애국주의자, 제국주의자가 아닌 것 같다. 하지만 우리 일본 국민을 보면 애국자가 아닌 자는 쓸쓸한 섯별처럼 거의 없다.

나는 단연 고동서고금의 애국주의, 단지 적을 증오하고 토벌할 때에만 발양되는 애국심을 찬미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일본 인민의 애국심을 배격하지 않을 수 없다.

고故 고토 백작

고토 백작은 예전에 한번 일본 국민의 애국심 선동을 시도하여 국가가 '위급 존망'에 처해 있음을 부르짖었다. 천하의 애국지사는 마치 풀이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저절로 따라갔다. 그런데 백작은 갑자기 조정에 발을 들여놓았

고, 대동단결은 촌몽처럼 사라졌다. 당시 일본인의 애국심이라는 것은 실을 백작을 사랑하는 애백伯심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아니고 토백작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번벌藩閥정부를 증오했기 때문이다. 그들의 애국심은 증오심이다. 같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을 만나면 오나라와 월나라도 형제다. 이 형제가 어찌 찬탄할 만한 것인가.

청일전쟁

일본인의 애국심은 청일전쟁에 이르러 세상에 일찍이 없을 정도로 폭발했다. 그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청나라 사람을 모멸하고 질시하고 증오했다. 백발노인에서 삼척동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청나라 4억의 생명을 죽이고 섬멸해야 감탄할 듯 한 기개가 있었다. 마음을 비우고 떠올려 보라. 오히려 미치광이를 닮지 않았던가. 오히려 굶주린 호랑이의 마음을 닮지 않았던가. 그렇다. 야수를 닮았던 것이 아닌가.

동물적 천성의 타월함

그들은 과연 일본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행복을 바라는, 진실로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가. 아니다. 오로지 적을 많이 죽이는 것을 기뻐했을 뿐이다. 적의 재산을 빼앗고 적의 땅을 많이 나누어 가진 것을 기뻐했을 뿐이고, 우리의 동물적 천성의 타월함을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을 뿐이다.

우리 천황이 출병시키신 것은 참으로 중국 고상에서 일견 듯이 형서荊舒를 무찌르고 용적戎狄을 쳐부수기 위해서였을까. 정말로 세계평화를 위해서, 인도人道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였을까. 하지만 어찌겠는가. 이로 인해 선동된 애국심의 본질은 증오이며, 모멸이고, 허영이다. 청일전쟁의 전과로 어떻게 국민 전반을 유형, 무형으로 이롭게 할 것인가에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돌을 섞은 캔

보면 안다. 한쪽에서 오백금, 천금을 흘병부恤兵部에 헌납한 부호가 한쪽에서는 병사들에게 돌을 섞은 캔을 팔아치웠다. 한쪽에서 죽음을 각오했다는 군인이 한쪽에서 상인의 뇌물을 품에 넣었는데, 그 액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을 이름하여 애국심이라 한다. 이상할 것도 없다. 야수 같은 살육의 천성이 열광을 극대화했을 때 최악이 번성하는 것은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찌 천황의 마음이 시겠는가.

일본의 군인

일본 군인이 존황충의尊皇忠義의 정情이 깊은 것은 참으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그들이 품은 존황충의의정이 문명진보와 복리증진에 얼마나 공헌하는지는 문제다.

자유를 숭배하고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는 영국에서조차 여전히 이와 같다. 나는 독일, 군국주의의 화신인 독일이 육해군비를 크게 확장하느라 항상 수많은 귀중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작년에 의화단 운동에 독일 황제가 복수라는 말을 부르짖으며 발더제장군을 동아시아에 파견했을 때, 같은 해 9월인 독일 사회당 대회가 한결의는 독일 제국주의의 진상을 갈파하고 도남음이 있었다.

독일 사회당의 결의

마인츠에서 열린 독일 사회당 대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독일 제국 정부가 취한 중국 전쟁 정책은 자본가의 광적인 이익 추구와 제국 건설이라는 군사적 허영심과 약탈적 정욕에서 출발한 것으로서, 이 정략은 외국의 땅을 강제적으로 영유하여 그 주민을 억압하는 것을 주의로 하는 것이다. 이 주의의 결과는 약탈자가 멋대로 야수적 행을 펼쳐 멋대로 파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강포하고 의롭지 못한 수단으로 침략의 욕망을 채우고 그로 인해 학대를 받은 자는 끊임없이 약탈자를 향해 반항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리라. 그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펴는 약탈 정책과 정복 정책은 반드시 각국의 질서와 경쟁을 불러일으켜, 그로 인해 육해군비의 부담은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실로 위험한 국제 분쟁을 초래하여 전세계 대혼란을 야기하기에 이를 것이다.

우리 사회민주당은 인간이 인간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는 신조에 반대하므로, 단호히 약탈 정책과 정복 정책에 반대한다. 인민의 권리와 자유, 독립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근대 문명의 교의에 따라 세계 각국과 문화 관계, 교통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우리당이 희망하고 의도하는 바다. 현재 각국의 부르주아 사회와 군사력을 권자들이 응용하는 교칙은 바로 문명에 대한 대대적 모욕이다.

그말이 얼마나 공명하고 고상한가. 너무도 찬란해서 해나 별과 그 빛을 겨룰 듯한 진리가 여기에 있지 않은가.

그렇다. 약탈과 정복으로 영토 확장을 시도한 유럽 각국의 제국주의는 문명과 인도에 대한 대대적 모욕이다. 그리고 나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부정과 불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제국주의

미국이 처음에 쿠바의 반란자를 도와 에스파냐와 싸울 때는 자유와 인도를 위하여 학정虐政을 제거한다고 내세웠다. 정말로 그대로라면 의의는 대단히 숭고하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쿠바 인민이 은혜에 감복하여 덕을 좇아 미국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쿠바를 병합해도

민들의야수적호전심이교묘하게선동당했기때문일뿐이다. 애국적허영과미신과해독은결코고대제왕의제국주의에뒤지지않음을알수있다.

트란스발의정벌

영국이트란스발정복을도모한것은보어인의독립을빼앗고자유를빼앗고유익한금광을빼앗아, 영국의국기國旗아래아프리카를통일하고철도를관통시켜그것으로소수의자본가와공업가, 투기꾼의잇속을만족시키기위해서였다. 세실로즈의야심과체임벌린의공명을만족시키기위해서였다.

놀랄만한희생

그들이쓸데없는목적을위하여얼마나가공할만하고놀랄만한희생을강요하고있는지를보자.

1899 년 10 월트란스발전쟁 (보어전쟁) 이벌어지므로내가이원고를집필하는시점에이르기까지거의 500 일, 그간영국군사망자는이미 1 만 3 천명에이른다. 부상자는이보다더 많다. 그리고불구자가되어병역을면제받고집으로돌아간자가 3 만명이다. 현지인사망자는실제수치를알수없다고하지않는가.

수만명의선혈의값 10 억엔

더욱이그들의재정적희생을보자. 20 만병사를 2 천리밖에주둔시키고수많은선박이왕래하는데드는하루군비가 2 백만엔이라고한다. 그들은이미 10 억엔의부를두나라국민의선혈로바꾸지않았는가. 그리고그사이금광채굴정지로거의 2 억엔에해당하는금의산출이감소했다고하지않는가. 비단두나라의불행일뿐만아니라, 세계북리에끼치는영향또한적다고할수없다.

현지인의참상에이르면특히동정을금할수없다. 영국인의포로가되어세인트헬레나섬에유배된자가이미 6 천명, 세일론 (실론) 섬으로유배된자가 2 천 4 백명, 지금키치너장군은 1 만 2 천명을더인도로보내려하고있다. 그리고두나라공화국의장정은거의사라졌고전원은완전히황폐해졌으며병마兵馬가통과하는들에는풀이없다고한다. 아아, 그들에게도대체무슨죄가있는것인가. 어떤책임이있는것인가.

현실이이와같은데도여전히지금의제국주의는불의나부정이아니라고하는가. 횡포나해독이아니라고하는가. 고상한도의를내세우는국민이허락할수있는존재인가. 20 세기문명천지에포함시킬수있는존재인가.

독일의정책

우리황상皇上을위하여

의화단사건이일어났을때, 다구大沽에서텐진天津에이르는도로가협준하여아군이몹시곤란했다. 한병졸이울면서말하기를우리황상을위한것이아니니이고생을견디느니오히려죽는것이낫겠다고했다. 이말을듣고논물을흘리지않은자가없었다. 나또한이때문에온다. 나는가련한병사가황상을위함이라고하고정의를위해서, 인도를위해서, 동포국민을위해서라고하지않은것을비난하지않는다. 그는평소에가정에서학교에서병영에서자기한몸을오로지황상에게바칠것을훈도받고명령받아다른것을모르기때문이다. 스파르타의노예는자유가있는줄모르고, 권리가있는줄모르고, 행복이있는줄몰라서주인을위하여혹사당하며채찍을맞고, 전장에나가죽는다. 전장에서죽지않더라도주인에게살육당하면서도, 자만하며생각하기를국가를위함이라고한다. 나는역사를읽고황상그들을위해울었다. 지금이마음으로또한우리병사를위해온다.

하지만지금은스파르타시대가아니고, 우리황상은자유와평화와인도를소중히여기시니, 어찌신하를노예로삼기를바라시겠는가. 나는믿는다. 우리병사로하여금황상을위함이아니라, 오히려진심으로인도를위해서, 정의를위해서라고말하게한다면황상께서기꺼이받아들이실것임을. 이것은참으로근왕충의의목적에합치하는것임을.

효성스러운창부

부모형제를재앙에서구하기위하여도독질을하는자가있다. 또는창부가되는자가있다. 중세이전에는몸을위태롭게하고이름을더럽히고나아가부모와형제, 가문을욕되게하는것이찬미되었다. 문명의도덕은오로지그심사를슬퍼하고어리석음을동정하지만결코비행을용서하지는않는다. 충의심도좋다. 천황을위함도좋다. 하지만정의와인도는내가알바아니라고한다면그것은야만적인애국심이다. 미신적인충의다. 어찌저효성스러운창부나도적과다르겠는가.

나는슬퍼한다. 우리군인의충의심과애국심이아직문명의고상한이상과합치하지않음을. 나아가중세이전의사상에서전혀벗어나지못한자가있음을.

군인과중군기자

그들군인의충의심, 애국심이왕성한데반해, 동포와인류를위하는동정심이사라진것은신문기자의대우하나만보아도알수있다. 북청사변에서군인들이중군기자를만났을때냉혹함이극에달했다. 그들은기자가먹을것이없음을돌아보지않았다. 기자가목을긋지않음을돌아보지않았다. 기자가병들었을때돌아보지않았다. 기자의생명이위험해도돌아보지않았다. 오히려기자들은우리와의관계가없다고했다. 그리고기자들을매도하고질책하여마치노예처럼대했다. 마치적수처럼대했다.

군인은국가를위해서싸운다고한다. 종군기자도마찬가지로우리국가의한사람이아닌가. 동포의한사람이아닌가. 그런데도군인들에게애호하는마음이없는것이어찌이토록심한가. 그들이말하는국가에는단지천황이있을뿐이고, 군인자신이있을뿐이다. 그외에는모르기때문이다.

우리 4 천만민중은목을길게빼고아군의안위가어떠한지알고자한다. 발꿈치를높이들어아군의전황이어떠한지듣고싶어한다. 종군기자는전장에뛰어들어생사의길을넘나든다. 어찌단지신문부수를늘릴뿐이겠는가. 그들은진실로우리 4 천만민중의갈증을해소하고자전장에뛰어든것이다. 그런데도군인은기자들이쓸모없다고했다. 4 천만국민에한점의동정도없음을알지못하겠는가.

국민이안중에없음

봉건시대무사는국가를무사의국가라고했다. 정치를무사의정치라고했다. 농·공·상에종사하는인민은국가와정치에관여할권리도없고의무도없다고생각했다. 지금군인도마찬가지로국가를천황과군인의국가라고여긴다. 그들은국가를사랑한다고하지만안중에군인이외의국민이있는가. 그러므로깨달을것이다, 애국심발양은적수에대한증오를더하지만결코동포에대한애정을더하는것은아님을.

애국심발양의결과

국민의고혈膏血을짜내군비를확장하고, 생산자본을뿌려비생산적으로낭비하고, 물가폭등을격화시켜수입초과를초래하고는국가를위해서라고한다. 애국심발양의결과는믿음직한가.

많은적군의생명을빼앗고적군의땅과재산을많이얻어놓고, 그러면서도오히려정부의예산은이로인해두배, 세배증가한것을국가를위해서라고한다. 애국심발양의결과는믿음직한가.

7

애국심이라는것은이와같다

내가앞에서주장한바에따라이른바패트리엇리즘, 즉애국주의나애국심에도대체어떤것인지대략이해할수있었다고민는다. 그것은야수적천성이다. 미신이다. 광기다. 허영이다. 호전적인마음이다. 실로이와같은것이다.

인류의진보가있는이유

주장하지마라. 애국심은인간의자연스러운성정이라이것이존재하는것은결국어쩔수없다고. 생각해보라. 자연에서발생한각종폐해를막는것은참으로인류의진보가있는이유가아니겠는가.

국가의번영은결코강도질로는얻을수없다. 국민의위대함은결코약탈과침략으로는얻을수없다. 문명의진보는일개제왕의전제로가능한것이아니다. 사회의복리는한나라국기의통일에있는것이아니다. 오로지평화에있다. 오로지자유에있다. 평등에있다. 생각해보면알수있다. 우리호조(北條) 씨치하의인민은몽고황제쿠빌라이(1215~1294) 병사에비해얼마나천수를누릴수있었는가. 현재의중립국벨기에인민이독일, 러시아국민들에비해얼마나평화를즐기고있는가.

쇠락은국가를뒤따른다

누가‘무역 trade 은국기國旗를뒤따른다’고하는가. 역사는명백히쇠락이국기를뒤따르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런데도앞차가뒤집히면그바퀴자국에뒤차도빠지는것이다. 주마등의회전이끝이없는것과같다. 나는지하의스키피오가또다시오늘날서구의말로를한탄하지않을까걱정한다.

2

국민의팽창인가

제국주의자는이렇게말한다. 과거의대제국건설이제왕정치가의공명과사욕을위해서였던것은정말로그렇다. 하지만지금의영토확장은국민의팽창을억누를수없기때문이다. 과거의제국주의는개인적 personal 제국주의였다. 지금의제국주의는국민적 national 제국주의로명명하지않으면안된다. 과거의불의와해악을꼬집어내어현재에적용할수는없다고한다.

정말로그런가. 지금의제국주의는국민의팽창인가. 소수정치가나군인의공명심팽창이아닌가. ‘국민이팽창’한반면에국민다수의생활의전투 struggle 가나날이매우심해지고있지는않은가. 빈부격차가점점벌어지고있는것은아닌가. 빈궁과기아, 무정부당 anarchist 과무수한죄악이점점증가하고있는것은아닌가. 이와같은상태에놓인그들다수의국민은어떠한여유가있어무한히팽창을할수있겠는가.

소수의군인, 정치가, 자본가

게다가소수의군인, 정치가, 자본가는가엾은국민다수의생산을방해하고재산을낭비하고생명까지빼앗아, 그것으로대제국건설을도모하고있다. 자국민다수의진보와복리를희생해서가난하고약한아시아인이나아프리카인, 필리핀인을협박하고능욕한다. 그리고이름하여국민의팽창이라고하는데, 엉터리도너무심하다고하지않을수없다. 설령국민다수가이정책에가담했다고해도어찌이것이진정한팽창일까. 오로지국

아, 아프리카에서 펼쳐는, 미국이남태평양에서퍼는영토확장정책은그것을감행할때제국주의로하지않았는가. 무력으로하지않았는가.

그리고그들이모두이정책을위하여날로천만금을소비하고, 달로수백명의목숨을해치고, 만 1 년이넘어도중국의전망이서지않은채, 헛되이땀을흘리며영원히스스로를괴롭히는것은진정으로그들이동물적애국심을억누르지못했기때문이란가.

대제국건설은날강도의소행

생각좀해보라. 오로지무위武威를떨치기위해서, 오로지사욕을채우기위해서멋대로남의국토를침략하고남의재산을약탈하고남의인민을살육하거나신첩臣妾이나노예로삼고의기양양해서이것을대제국건설이라고민는다. 그렇다면결국대제국건설은말그대로날강도의소행이아닌가.

무력제국의흥망

날강도짓을무사의관례라고여겼던, 의롭지못하고부정한제왕정치가는날강도짓을저지르고유쾌해하고있다. 이전세기의영웅호걸의사업은대개는이것이였다. 하지만, 보라. 하늘을걸코이러한부정과불의를용서하지않는다. 예로부터무력으로팽창한제국가운데끝까지지속된것이있는가. 그들제왕정치가는처음에는공명과사욕을위해, 또는국내의단결과안정을유지하기위해계속해서국민의야수성을선동하고부추겨외국을정벌한다. 그리고외국에승리하여영토를확장한다면, 대제국이일단건설된다. 국민은허영에눈이멀고군인은권세를늘린다. 새로운영토는압제에시달리고혹사당하고조세가무겁게부과되고재산을빼앗긴다. 이어서다가오는것은영토의황폐와곤궁, 불평과반란이다. 본국의사치와부패, 타락이다. 그리고그국가는또다른신흥제국에게정복당한다. 예로부터무력제국의흥망은완전히똑같은과정을거치고있다.

저옛날, 스키피오는카르타고의폐허를보고로마또한언젠가이렇게될것이라고탄식하며말했다. 그렇다. 최후에는정말로그렇게되였다. 칭기즈칸의몽고제국은지금어디에있는가. 나폴레옹의제국은지금어디에있는가. 진구(神功) 황후의속령은지금어디에있는가. 도요토미히데요시(豊臣秀吉) 의웅대한계획은어디에있는가. 아침이슬처럼덧없이사라져버리지않았는가. 기독교제국은결코멸망하지않는다고말하지말라. 로마제국은말년에기독교를국교로신봉하지않았던가. 노예해방이후의제국은결코쇠퇴하거나퇴폐하지않는다고말하지말라. 에스파냐대제국의본토는노예제도를폐지하지않았는가. 공업제국은결코영락하지않는다고말하지말라. 무어인과피렌체인은공업을크게발달시키지않았는가.

물은정체되어움직이지않고오래되면부패한다. 이것이자연이다. 만약이물을움직이게하고흐르게해서부패를막는다면자연에거역하는것이라고비난할수있겠는가. 인간이노쇠하여질병에걸리는것은자연이다. 병자에게약을투여하는것을자연에거역하는것이라고책망할수있는가. 금수나어패류나초목은생명을자연에맡긴다. 죽음을자연에맡긴다. 진화하거나퇴보하는것또한스스로이루는것이아니라자연에맡길뿐이다. 만약인간이자연에순응하는것을능사로삼는다면그야말로금수, 어패류, 초목일뿐, 어찌인간이라고할수있겠는가.

인간은스스로일어나자연의폐해를바로잡기때문에진보하는것이다. 다만가장많이자연의욕정을제압하는인민이가장많이도덕이진보한인민이다. 천연물에가장많은인공을가한인민이물질적으로가장많이진보한인민이다. 문명의복리를누리려는자는실로자연을맹종해서는안된다.

진보의대의

그러므로깨우쳐라, 미신을버리고지식을쫓고, 광기를버리고논리를쫓고, 허영을버리고진실을쫓고, 호전적인마음을버리고박애의마음을쫓는것이인류진보의대의임을.

그러므로깨우쳐라, 저야만적천성을벗어나지못하면서지금의애국심에혹사당하는국민은품성이더럽고천박하니감히고상한문명국민이라일컬을수없음을.

그러므로깨우쳐라, 정치를애국심의희생으로삼고, 교육을애국심의희생으로삼고, 상공업을애국심의희생으로삼고자하는자는문명의도적, 진보의적, 나아가세계인류의죄인임을. 그들은 19 세기중엽에일단노예신분에서탈출한다수의인류를이치에맞지않는애국심이라는미명아래또다시노예신분으로떨어뜨릴뿐만아니라, 나아가야수의경지로까지추락시키려고하는자임을.

문명의정의와인도人道

그러므로나는단언한다. 문명세계의정의와인도는결코애국심의발호를허락하지않으며반드시이것을제거하지않으면안된다는것을. 하지만어찌하겠는가, 비천한애국심이이제나아가군국주의 militarism 가되고제국주의가되어전세계에서유행함을. 나는지금부터조금더자세히군국주의가어떻게세계의문명을파괴하고인류의행복을저해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제 3 장 군국주의를 논하다

1

군국주의세력

지금군국주의세력의왕성함은전례가없고거의극에달했다. 각국이 군비확장에소모하는정력이나그로인해사라져버리는재력을일일이계량할수도없다. 군비를단지평상시외환이나내란을방어하는도구로여길뿐이라면어찌이토록심할필요가있겠는가. 그들은유형적으로무형적으로나라전체를군비확장의희생으로삼으면서도여전히반성하려고하지 않는다. 군비확장의원인과목적은방어이외의것임에틀림없다. 보호이외의것임에틀림없다.

군비확장의이유

그렇다. 군비확장을촉진하는이유는다른곳에있었다. 다름아니라일종의광기, 허영심, 호전적애국심이다. 단지무인의호사로서대개병법을가지고놀기위한것도있다. 무기, 양식등의군수품을제공하는자본가가일확천금의막대한이익을얻기위해서촉진하는것도있다. 영국, 독일등에서군비를확장하는데에이들이관여하는힘이특히강했다. 하지만무인이나자본가가쉽게야심을확고히할수있는이유는다수인민이허영적, 호전적애국심을분출하는것을기회로삼기때문이다.

갑국민은“우리는평화를원한다. 하지만을국민이침공을욕망하니어찌하겠는가”하고말한다. 을국민도“우리는평화를원한다. 하지만갑국민이침공을욕망하니어찌하겠는가”하고말한다. 세계각국이모두같은말을하지않는곳이없다. 먹던밥이튀어나올정도로골계의극치다.

무사인형공주인형

이런식으로각국국민은아이들이무사인형이나공주인형의아름다움을자랑하며누가더많이가졌는지를겨루는것처럼, 무장이얼마나정예하고병함兵艦이얼마나많은지를겨루고있다. 그것은단지서로겨루는것일뿐이지, 결코적국이곧쳐들어온다고믿는것은아니다. 결코외국으로출정하는것이긴요하다고여기는것은아닌것같다. 이것은아이들놀이와비슷하다. 더욱이가공할만한참상이내부에서배태됨을어찌할까.

몰트케장군

고故몰트케장군은“세계평화의희망은몽상일뿐이고, 더욱이이꿈은 결코아름답지않다”고했다. 그렇다. 평화의꿈은장군에게는추할것이다. 장군은실로아름다운몽상가였다. 장군이프랑스를이겨 50 억프랑

본능인호전심에압도당하기때문이다. 박애심이허영때문에감소되었기때문이다. 이론이미신때문에안보이게되었기때문이다.

맹수와독사의지역

아아, 개인은이미무장을풀었는데, 국가는아직그렇게할수없다. 개인은이미폭력의결투를금지했는데, 국가는아직그렇게할수없다. 20 세기문명은아직약육강식의영역을벗어나지못하고세계각국민은마치맹수와독사의지역에살고있는것처럼하루도편안히살수없다. 치욕이아닌가. 고통이아닌가. 이것은사회의선각자가태연히간과할수있는문제인가.

제 4 장 제국주의를 논하다

1

야수가고기를탐하다

야수가어금니를뒹고발톱을갈아올부짚는것은고기를찾기때문이다. 야수적본능에서벗어날수없는그들애국자가무력을기르고군비를확장하는것은모두자기의미신과허영과호전심을만족시키기위해희생물을찾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애국심과군국주의의열광이정점에달할때영토확장정책이전성기를맞이하게되는것은본래이상한일이아니다. 지금제국주의정책의유행은바로여기에해당한다.

영토확장

그렇다. 제국주의란요컨대대제국 great empire 건설을의미한다. 대제국건설이란그대로속령과영토의대확장이많은부정과불의를의미하고, 또한많은부패와타락을의미하고, 최후에는영락과멸망의의미를슬퍼한다. 무엇을근거로이와같이말하는가.

생각건대대제국건설이오로지주권자도없고주민도없는황량한산야를개척하여여기에인간을이식하는정도에머무른다면대단히좋은것이리라. 하지만지식과기술이날로발달하고교통이날로편리해지는지금, 지구상어디에서주인없는땅을발견할수있겠는가. 세계도처에이미주권자가있고주민이있다고한다면, 그들은과연폭력을사용하지않고전쟁을하지않고속임수없이조금이라도땅을점유할수있는가. 유럽각국이아시

없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단호히 전쟁준비를 폐지하고 평화와 박애의 복리를 얻지 않는 것일까.

그들은 생산물이 싸면 서도 동시에 풍부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통상과 무역이 번영하고 융성해질 것을 바라고 있다. 또 군사공채가 막대한 자금을 낭비하고 생산력을 소모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전쟁이 통상과 무역을 크게 저해하고 좌절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군비의 비용과 전쟁력을 절감하여 상공업에 투입하지 않는 것일까.

평화회의의 결과

보라. 재작년에 러시아 황제가 군비제한회의를 제창하자, 각국은 조금도 이익을 제기하지 못하고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터르크, 일본, 청나라 등 20 여개국 전권위원이 명확히 “현재 세계를 무겁게 억누르는 군비 부담을 제한함으로써 인류의 유형, 무형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크게 노력할 것은 인정한다”(평화회의 최종결의서)고 결의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일반의 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을 절실히 희망하며, 전력을 다하여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원조할 것을 결의했고 … 국제적 정의의 감각을 강고히 할 것을 희망하며 … 국가 안전, 국민 복리의 기초인 공평 정리의 원칙을 국제적 협상으로 확립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함을 인정하”(국제 분쟁 평화적 처리 조약)여, 중재 재판에 관한 규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어찌하여 더욱 더의지와 관념을 추진하고 확장하여 결연히 육해의 군비를 철폐하지 않는 것일까.

약간일보 전환

지금의 군비를 평화를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공명심이 왕성하고 허영심이 강한 정치가나 군인은 대개 총포를 헛되이 녹슬게 하고 전함을 헛되이 썩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여, 반드시 어느 날 기회를 보아 실지에 써보려고 하지 않는 자가 없는 것이, 취한 이 칼을 들고 흘려보고 있는 듯하다. 불안해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다. 군비가 평화의 확보에 서 평화의 교란이 되는 것은 완전히 중이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 서로 대항하여 세력이 균형을 이룬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세력 균형주의라는 이름 아래 잠깐은 평화 확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구가 적고 무력이 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를 만나면 갑자기 변해서 이른바 제국주의라는 이름으로 평화의 교란자가 된다. 지금의 청나라나 남아프리카의 예를 보라. 무장에 급급하여 최소한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군비를 제거하여 적극적인 평화를 받아들이는 것에 비하여 찌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이 군비를 철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군비 확장에 국력을 허비하는데 열중하는 것은 왜일까. 다름 아니다. 그들의 양심이 모조리 공명과 이욕으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다. 정의와 도덕의 관념이 동물적

의 배상금과 알자스, 로렌 두주를 할양했음에도, 오히려 프랑스의 상공업이 빠르게 번영하고 독일 시장이 갑자기 일대 혼란과 좌절에 빠진 것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낸 사건은, 장군의 아름다운 꿈의 결과였다. 아름다운 꿈의 결과로 몹시 추하지 않은가.

야만인의 사회학

그리하여 몰트케 장군은 또 다시 아름다운 무력으로 프랑스를 크게 타격해서 무너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자주 시도했다. 이것은 오로지 무력의 승리로 국민을 부유하게 하려는 몰트케 장군의 정치적 수완이다. 만약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20 세기 국민의 이상으로 숭배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야 만인의 윤리학, 야만인의 사회학이 상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작은 몰트케의 배출

하지만 군국주의가 번성한 결과, 몰트케 장군은 현대의 이상이 되었다. 모범이 되었다. 작은 몰트케가 우후죽순처럼 세계 도처에서 배출되었다. 동양의 한소국에서도 작은 몰트케는 의기양양하게 활보한다.

그들은 군비 제한을 주장하니 콜라이 2 세 황제 폐하를 몽상가라고 비웃었다. 평화회의를 농담이라고 매도했다. 그들은 항상 평화를 희구한다고 설파하는 혀를 가지고, 한편에서는 군비는 미덕이고 전쟁은 필요하다고 앞장서서 외친다. 나는 그 모순을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잠시 사회가 군비와 전쟁을 필요로 하는 이유를 들어보자.

2

머헨대령

최근 들어 군국이라는 것에 정통하다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바로 머헨대령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의 대저작은 영미 각국의 군국주의자, 제국주의자들 사이에서 대가의 작품으로 낙양洛陽의 중잇값을 올리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무사 중에도 그의 책을 애독하는 자가 많음은 그의 번역서 광고가 잦은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군국주의를 논하는 자가 우선 그의 의견에 주의하는 것은 편익이 자의 무라고 믿는다.

군비와 징병의 공덕

머헨대령이 군비와 징병의 공덕을 설파한 것은 대단히 교묘하다.

군비가 경제적으로는 생산을 위축시키고 인간의 생명과 시간에 과세하는 등의 불이익이나 해독을 초래한다는 것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으니 새로이 주장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한편으로살펴보면, 그이익은폐해를보상하고도남음이있지 않은가. 웃어른의권력이쇠잔하고극도로기강이해이해진시절을맞아, 나이어린국민이질서와복종과존경을학습할수있는병역이라는학교에 들어가, 체구는조직적으로발달하고, 극기나용기나인격이군인의요소로양성되는것은아무런쓸모없는일인가. 다수의연소자가향촌을떠나무리를이루어고등지식이있는선배와섞여정신을결합하고동작을같이해야함을교육받고, 헌장법규의권력에대한존경심을길러서각자의집으로돌아가는것은, 오늘날처럼종교가퇴폐한시절에아무런쓸모없는일인가. 보라. 처음으로교련을받은신병의태도나동작과이미교련을끝낸병사가가두에모여있을때의용모와체격을비교해보라. 얼마나우열이심한지를충분히알수있을것이다. 군인적교련은장래에활발한생계를영위하는데결코유해한것이아니며, 적어도대학에서세월을소비하는것보다유해하지않다. 그리고각국민이상호간에무력을존중하기때문에평화가더욱더확보되어전쟁이줄어들고, 우연히격변이발생해도과정이급속히진행되며대단히쉽게진정된다. 이것이야무런쓸모가없다고할수있겠는가. 아마도전쟁은백년전에는만성적질병이었지만, 오늘날에는발생이극히드물며오히려급성발작에가깝다. 그러므로급성적전쟁의발작에대응하는준비, 즉선량한목적에서싸우는마음은본래선하고아름다운것임을잃지않으며, 그리하여이마음은병사가용병傭兵이었을당시보다도훨씬광대하고왕성함을확인할수있다. 그것은지금국민이모두병사이고단정한군주의노예가아니기때문이다.

머헨대령의언사는참으로교묘하다. 하지만나는이주장이대단히논리에맞지않다고생각한다.

전쟁과질병

머헨대령의논리를해부하면, 요컨대전투를익혀질서와존경과복종의덕을기르는것은오늘날과같이권력이쇠잔하고기강이해이할때는가장긴요한일이다. 하지만전쟁은질병이다. 백년전에는만성적질병이었다. 지금은국민개병이고전쟁은감소했다. 우연히전쟁이일어나도급성이다. 건강할때에항상급성발작에대응하는준비와주의가필요하다고한다. 머헨대령의주장에따르면국민이전쟁이라는만성적질병에걸렸던시대에는질서가있고기강이잡혀있었고, 건강한시대는“기강이해이고”“종교가퇴폐”한시대가된다. 이상하지않는가.

쇠잔한권력과해이한기강

머헨대령이권력의쇠잔, 기강의해이라고언급한것은아마도사회주의의등장을가리키는것이다. 그것이거짓임은두말할필요도없다. 하지만설령지금백년전과비교하여기강이해이해졌다고하더라도, 설령사

아귀도의고통

군대가그들에게지급하는것은하루에불과 3 센錢이다. 이것은거의거지신세가아닌가. 그래도담배는피우지않으면안된다. 우편요금도지불하지않으면안된다. 심한경우에는항상고참병의학대를모면하기위하여밥값이나술값을뇌물로주지않으면안된다. 심부름값을살짝건네지 않으면안된다. 돈이있는자는그래도괜찮다. 조금이라도가난한자에게는 3 년이나되는긴군대생활은정말이지아귀도의고통이다. 지옥의옥졸獄卒이라고하는우두牛頭, 마두馬頭에게당하는고통이다. 더욱이부자는고등교육을받는다는이유로징병을모면하고, 몸이약하다는이유로피할수있을것이다. 빈민의아들은항상이혹독한고통을견디지않으면안된다. 공정하다고할수있는가. 나는그들이징병검사를기피하고병영을탈주하고, 자포자기끝에중중수치스럽게죽는것을증오하지않고오히려그마음에대단히슬퍼할것이있음을느낀다.

이와같이괴로워하며 3 년을지내고병영을나온뒤에남는것은무엇인가. 단지부모의노쇠, 전원의황폐, 자신의타락한품행밖에없다. 이러한것까지국가를위하여필요하다는것인가. 의무라고해야만하는것인가.

군비자랑을그만두자

군비를과시하는것을그만두자. 징병제도를송배하는것을그만두자. 나는병영의의지할곳없는유민을수없이만들어내는것을보았다. 생산력을낭비하는것을보았다. 많은능력있는청년들을좌절시키는것을보았다. 병영이있는지방의풍속이심하게파괴되는것을보았다. 행군연도의양민이그들때문에큰피해를입는것을보았다. 하지만아직군비와징병이국민을위하여쌀한톨, 금한조각이라도생산한것을보지못했다. 하물며과학이나문예나종교와도덕의드높은이상은어떻겠는가. 아니비단이러한것들을생산할수없을뿐만아니라, 오히려완전히파괴하려고하는것은아닌가.

6

왜언제까지나서로도발하는것일까

아아, 세계각국의정치가나국민은어찌하여이토록수많은군인과병기와군함을끌어안고오래도록서로혈뚫으려고하는것일까. 어찌하여일찍이들여우처럼서로속이고또한미친개처럼서로물어뜯는상황을탈출하여더높은문명과도덕의경지로진입하려고노력하지않는것일까.

그들은전쟁이죄악이자해독임을알고있다. 그들중에되도록전쟁을피하려고하지않는자가없다. 그들은평화와박애가정의이자복리임을알고있다. 그들중에되도록빨리평화와박애가실현되기를바라지않는자가

구하고 있다. 지위의 평등과 방법의 공명함을 중시하는 등의 행위는 무익한 관용으로 역사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가.

교활함을 겨루는 기술

그렇다. 전쟁은 오로지 교활함을 겨루는 기술이다. 전쟁의 발달은 교활함의 발달이다. 미개의 야만인이 교활함을 즐기는 경우는 대개 적의 허를 찌르는데 있다. 복병에 있다. 야습(夜襲)에 있다. 양도(糧道, 군량미를 나르는 길)를 끊는데 있다. 함정을 파는데 있다. 그리하여 교활함이 부족한 자는 몸은 멸망하고 재산은 갈취당하며 땅을 빼앗겨, 우자적존(優者適存, 즉 빈틈이 없고 남을 속이는데 탁월한 자만이 생존할 뿐이다. 이렇게 되면 통상의 지식이나 기술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더욱 더 많은 교습과 조련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교습과 조련 등이 거의 도움이 되지 않게 되면, 더욱 더 크게 무기의 기교를 겨루게 된다. 이것에 이로부터 전쟁 기술이 발달하고 진보한 대체적인 순서다.

전쟁 발달 단계

전쟁 발달 단계는 오로지 어떻게 적의 의표를 찌러 쓰러뜨릴 것인지 수단을 강구하는데 있었다. 목적이 아무리 비열하고 수단이 아무리 역겨워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래서야 어찌 개인의 결투와 같은 수준에서 논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야 어찌 남자의 미덕인 강건함이나 군셈, 강직함을 서로 비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개인의 결투는 승패를 최후의 판결로 하는데, 전쟁에 이르면 항상 복수에 복수가 이어지는 참상이 연출되는 것은 결코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차피 전쟁은 음모다. 속임수다. 여성적 행위다. 호리(狐狸)적 지성(知術)이다. 공명(公明)정한 싸움이 아니다. 사회가 전쟁을 유쾌하게 여기고 중시하고 필요로 하는 동안 인류의 도덕은 아무래도 여성적, 호리(狐狸)적 성격을 탈피할 수 없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 비열한 죄악을 저지르고자 수많은 청년을 끌어내 병영이라는 지옥에 던져 넣고 있다. 야수의 본능을 키우고 있다.

가엾은 시골 장정

보라. 가엾은 시골 장정이 울면서 부모, 형제 자매와 헤어지고, 울면서 소와 말, 닭과 개와 헤어지고, 울면서 아름다운 산수, 평화로운 전원을 뒤로 하고 병영에 들어간다. 밤낮으로 듣는 것은 상관의 엄격한 질타 소리다. 보는 것은 고참병의 잔인한 능욕의 얼굴이다. 무거운 것을 등에 지고 동으로 달리게 하고 서로 쫓긴다. 피로를 견디며 오른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달린다. 오로지 이와 같은 것을 3 년 동안 반복하니, 단순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회주의 자가 현 사회의 질서와 권력을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기강이 해이하고 종교가 퇴폐한 결과라 하더라도, 징병제와 군인적 교련으로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부디 현실을 직시하라.

혁명 사상의 전파자

미국 독립 전쟁을 지원했던 프랑스 군인은 대혁명에서 구질서 파괴에 유력한 동기가 되지 않았던가. 파리에 침입한 독일 군인은 독일 제국에서 혁명 사상의 유력한 전파자가 되지 않았던가. 현재 유럽 대륙에서 징병제를 채택한 제국의 병영이 항상 사회주의의 일대 학교로서 현 사회에 대한 불평 양성소가 되는 것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가. 나는 사회주의 사상이 흥하여 번성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양성한다는 이유에서 결코 병영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맹대령의 말처럼 병사의 교련이 웃어른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미덕을 기를 수 있다는 말이 거짓임을 깨닫지 못하겠는가.

그렇다. 카이사르의 군대는 과연 얼마나 국가의 질서에 존경심을 품었던가. 크롬웰의 군대는 처음에 의회를 위하여 빼든 검을 휘둘러 오히려 의회를 전복시키지 않았던가. 그들은 단지 카이사르, 크롬웰이 있음을 알았을 뿐, 국가의 질서와 기강은 몰랐다.

질병의 발생

인간이 군인적 교련을 받는 것은 단지 선량한 목적을 위하여 싸우기 위한 인가, 아니면 이른바 급성 질병 치료에 대응하기 위한 인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백년을 유유히 오래도록 교련으로 시작해서 교련으로 끝나는 것을 참겠는가. 아니다, 반드시 스스로 질병을 일으켜서 만족하고자 할 것이다.

징병제와 전쟁 횃수

국민개병이 고왕후의 노예가 아니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로써 각 국민이 서로 무력을 존중하기 때문에 전쟁이 감소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망언이다. 고대 그리스와 이탈리아는 국민개병이었지, 결코 왕후의 노예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전쟁은 만성 질환이 아니었던가. 용병을 써서 약소국을 정벌할 경우에는 순전한 징병보다 편리한 점이 있다. 그렇지만 국민개병의 징병제가 결코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줄이는 것은 아니다. 나폴레옹의 전쟁도 징병이었다. 근대 유럽에서 오스트리아-프랑스 전쟁, 크림 전쟁, 오스트리아-프로이센 전쟁,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러시아-투르크 전쟁이 빈발하여 징병제의 참상은 극에 달하지 않았던가.

만약 최근에서로 필적할 만한 양국간 전쟁에서 끝이 앞당겨진다면, 그것은 국민의 훈련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의 참상이 몹시 끔찍하거나 인간의 도리를 반성하는 것이 더욱 빨라졌기 때문일 뿐이다.

전쟁감소의이유

1880 년이후에서로필적할만한강국간전쟁이거의일어나지않은것은두나라국민이서로존경하기때문이나니라, 단지전쟁결과에대한공포를통찰하고어리석음을깨달았기때문일뿐이다. 독일과프랑스는전쟁이함께멸망하는것으로끝날것임을깨달았다. 러시아황제는일등국과싸우는결과가파산과영락 ruin 입을깨달았다.

강국이서로싸우지않는것은단지이때문이다. 징병훈련으로존경심을양성한성과가아니다. 보라. 그들은지금아시아, 아프리카에엄청나게무력을쓰고자하지않는가. 그렇다. 그들의허영심, 호전성, 야수적천성은오히려군인적교련으로격렬하게선동되고있다.

3

전쟁과문예

군국주의자는철이물과불의단련을거쳐예리한검이되듯이, 인간도일단전쟁의단련을거치지않으면결코위대한국민이될수없다고말한다. 미술이나과학, 제조업은전쟁의고무나자극없이능히고상한발달을이루기어렵다. 예로부터문예가크게흥하여번성한시대는대개전쟁이후시대에속한다. 페리클레스의시대는어떠한가. 단테의시대어떠한가. 엘리자베스의시대어떠한가라고말한다. 나는평화회의가제창되던때에영국의유력한군국주의자가이주장을한것을알았다.

그렇다. 페리클레스나단테나엘리자베스시대의인민들은모두전쟁을알았다. 하지만고대의역사는거의전쟁으로충전되었다. 전쟁을거친것은비단이들시대만이아니다. 그외의시대도마찬가지로전쟁을겪었다. 어찌그들의문학을오로지전쟁의은덕이라고할수있겠는가. 따라서그들의문학이전후에급속히흥하여번성했다거나그것들이전쟁과관련한일관된특징이있음을증명하지않으면아직건강부회를벗어날수없다.

고대그리스의여러나라중에전쟁을즐기고전쟁에능란한것으로스파르타만한데가없다. 그런데스파르타는과연기술이나문학이나철학을하나라도남긴것이있는가. 영국헨리 7 세와헨리 8 세의조정은맹렬한내전이끊이지않았다. 하지만문예발달은추호도볼만한것이없지않은가. 엘리자베스시대의문학부흥은멀리에스파냐무적한대를제압하기이전에예견된것이었고, 에드먼드스펜서나셰익스피어나베이컨이결코이전쟁때문에나왔다고할수는없다.

유럽각국의문예와학술

30 년전쟁은독일의문학과과학을한차례시들게만들어버렸다. 루이 14 세즉위당시에융성했던프랑스의문학과과학은터무니없는무력으로

아무것도이상히여길것은없다. 기린과봉황은가시가있는곳에는살지않는다. 비스마르크공, 몰트케장군을이상으로삼는세계에서는과테, 실러의재생을바라기힘들다. 가엾은애국주의자여, 그대는오로지빌헬름, 빌로, 발더제가그만큼문명을진보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가.

독일황제와불경죄

그러므로나는단언한다. 군국정치가하루행해지면국민의도의는하루부패하는것이다. 폭력이하루행해지면이론이하루절멸하는것을의미한다. 독일이비스마르크공의독일이된이후, 유럽에서윤리적세력 influence 을잃은것은자연의도리다. 지금의빌헬름 2 세황제가즉위한뒤로 10 년동안불경죄로처벌받은자가수천명에이른사실이눈에보이지않는가. 이것은우리충성스럽고선량한일본국민이쫓조차꾸지못할일일것이다. 군국주의자는그럼에도아직이것을바람직하다고하는가. 이렇게되어도아직군국정치를명예라고할셈인가.

5

결투와전쟁

군국주의자는나아가전쟁을찬미하며말한다. 국가의역사는전쟁의역사다. 개인간의분쟁이결투 duel 로최후의판가름이나는것과마찬가지로, 국제분쟁에최후의판정을내리는것은전쟁이다. 요컨대지구상에국가라는구별이존재하는동안은전쟁이사라지지않는다. 전쟁이존재하는동안군비의필요는어쩔수없다. 또전쟁은우리들이강건한힘, 굳센마음, 강직한성정을서로비교하면서진정한대장부의의기와정신을발양하는소중한수단이다. 만약이것이없으면, 천하는판세상이되어유약한여성의천하가되고말것이라고. 어찌그런것이있겠는가.

나는여기에서개인간결투의시시비비나이해득실을알가알부할여유가없다. 하지만전쟁을결투와비교하는것은부도덕의극치임을단언한다. 서양의결투도일본의결투果し合い도한사람의명예에목적이있을뿐이다. 한사람의체면에목적이있을뿐이다. 두사람의힘을비교할경우는극히평등한위치에서극히공명하게싸움을한다. 그리고한사람이다치거나죽으면만사가정리되어, 훗날에마음에는한점의그늘도남지않는다. 진정으로남성을위한미덕을잃지않는다. 하지만전쟁의경우는이것과완전히상반된다. 그목적의비열함과수단의역겨움은한이없다.

옛날에이름을대며일대일승부를한전쟁은얼마간결투와닮은점이있다. 하지만이것은지금전쟁에서는가장명청한것으로조소당하지않는가. 전쟁은오로지빈틈없을것을요구하고있다. 오로지남을속일것을요

러시아군대의포악함

최근에는청나라에서러시아군대의포악함을보라. 통저우通州한지방에서만그들에게위협당하여강물에빠져죽은부녀자가 7 백여명에달했다. 이사건하나만으로도사람을전율시키지않는가. 군인적교련과전쟁준비가가능하인격을고양하고도의를양성한다면 13, 14 세기이후전투에서나고전투에서죽은카자크 (Kazak) 는인격이높고도의가넘쳐나지않으면안되는도리다. 하지만사실은참으로이와반대인것은어째서인가.

만약군국주의가진정으로국민에게지식과도덕을심고지위를향상시키는효과가있다고한다면, 투르크는유럽에서제일높은지위에있지않으면안될터이다.

투르크의정치

투르크의정치는군국의정치다. 투르크의예산은군사비의예산이다. 무력으로보면투르크는결코약소국이아니다. 투르크의주도권은 19 세기에는완전히몰락했지만, 그래도나바리노에서는선전했다. 크림에서선전했다. 플레네편에서선전했다. 테살리아에서선전했다. 투르크는결코약소국이아니다.

그렇지만그것이진정으로투르크가자랑으로삼는것인가. 자랑으로삼기에충분한것인가. 부패하고흉포하고가난하고무지하다는점에서거의모든문명적진보에서유럽최하위에있는것이투르크아닌가. 국가의운명이끊어지려고하는가는실과같아서니콜라이 1 세에게병자취급을당한것이투르크아닌가.

독일은평균적으로말하면, 아직고등교육을받은국민의지위를잃지않았다. 문예나과학의많은부분이아직찬연히존재하고있다. 하지만철학주의와군국주의가온나라를휩쓴뒤로예전의높고원대한윤리사상은지금어디에있단말인가.

독일과일대도덕의원천

독일국민은예전에는유럽에서일대도덕의원천이었다. 칸트, 실러, 헤르더, 괴테, 리히터, 피히테, 블룬칠리, 마르크스, 라살, 바그너, 하이네등의이름은문명국들이우러러본류로삼았고, 이들에게감화받은세력이끊이지않았다. 그런데지금은어디에있는가. 지금우리는예술, 과학의많은것을독일에서배우고있다. 그래도철학에서, 윤리에서, 정의나인도人道의일대문제에서, 지금독일문학에서배우고자하는것이하나라도있는가. 사회주의의이상이나직중류의기둥이라는것을제외하고는유럽각국이우러러본류로삼을가치가있는것이어디에있을까.

기린과봉황은가시밭에살지않는다

극도로쇠미해졌는데, 겨우만년에이르러부흥이시작되었다. 프랑스의문학이전송의시대보다대전쟁에패하여어려운시대에항상용성했음을왜알지못하는가. 근대영국의테니스 (Alfred Tennyson, 1809~1892), 새커리 (William M. Thackeray, 1811~1863) 의문학, 다윈의과학을크림전쟁승리의성과로돌린다면누가비웃지않겠는가. 독일의여러대가는프로이센-프랑스전쟁후에나온것이아니라그전에나왔다. 미국문학의전성기는내란후가아니라전이다.

일본의문예

우리일본의문예도나라 (奈良, 710~794) ·헤이안 (平安, 794~1192) 시대에용성했던것이호겐 (保元, 1156~1158) ·헤이지 (平治, 1159) 시대에쇠퇴했으며, 호조北條시대 (가마쿠라시대) 의소강상태를거쳐다소부흥의기운으로향했지만, 겐코 (元弘, 1331~1334) 이후남북조에서오닌 (應仁) 의난 (1467~1477) 을거쳐겐키 (元龜, 1570~1573) ·덴쇼 (天正, 1573~1592) 에이르는동안에거의인멸되어, 단지오산五山の승려에의해한줄기명맥이어어진것은적어도역사를읽은자라면수긍하는사실이다.

따라서문예가전쟁이후에흥하여번성하는경우가만약이었다면, 이것은단지전쟁동안에억눌리고방해받던문예가다소태평한시대를만나머리를쳐드는데이지, 결코전쟁때문에촉진되는것이아니다. 무라사키시키키부 (紫式部) 나아카조메에몬 (赤染衛門) 이나세이쇼나곤 (清少納言) 은전쟁으로무슨감화를입었는가. 산요 (山陽) 나바킨 (馬琴) 이나후라이 (風來) 나소린 (巢林) 은전쟁때문에무슨고침을얻었는가. 오가이 (鷗外) 나쇼요 (逍遙) 나로한 (露伴) 이나고요 (紅葉) 는전쟁과무슨관계가있는가.

나는전쟁이사회문예의진보에걸림돌임을확인했다. 아직전쟁이발달에보탬이되는것을본적이없다. 청일전쟁때나온군가 <쳐부수어라흔내쥐라청나라를> 을나는대문학大文學이라부를수없다.

무기개량

칼과창이나함포가개량되고진보하여점점견고하고우수해지는것은어찌면전쟁의힘인것같다. 하지만이것은모두과학기술이진보한결과이며, 사실평화덕분아닌가. 설령전쟁자체의성과라고하더라도, 무기의발명과개량이국민을고상하고위대하게만드는지식과도덕에얼마나공헌하겠는가.

군인의정치적재능

그렇다. 군국주의는결코사회의개선과문명의진보에도움이되는것이아니다. 전투숙달과군인생활은결코정치적·사회적으로인간의지덕

을증진시키지못한다. 나는이점에대한더욱더적합한증거로서, 예로부터무공이혁혁한영웅이정치가로서재능과문치의성적이얼마나보잘것없는지를제시하고자한다.

알렉산드로스, 한니발, 카이사르

고대에알렉산드로스대왕, 한니발, 카이사르는최고의호걸로서삼척동자도그이름을알았다. 하지만그들은쉽게파괴하는것에비해건설의힘이라고는없었다. 알렉산드로스의제국 empire 은정치학적관점에서보면실로있어서는안되는현상이다. 거기에는오로지정복의전환 conversion 이일시적으로있었을뿐이기에, 알렉산드로스의제국이산산이붕괴되어간것은당연한이치다. 한니발의병략과지략은, 그가이탈리아를압도한 15 년동안로마인이감히그위세를우러러보지못하게만들었다. 하지만카르타고가부패의고황膏肓에든것을구할수는없었다. 카이사르가전쟁에임하는것은굶주린호랑이와같았어도정치의단상에서는것은눈먼뱀과같아서, 오로지로마의민정을타락시켜만인의원성을샷을뿐이다.

요시쓰네, 마사시게, 유키무라

미나모토노요시쓰네 (源義經, 1159~1189) 는전투에탁월했다. 구스노키마사시게 (楠正成, 1294~1336) 나사나다유키무라 (真田幸村, 1567~1615) 도마찬가지로전쟁에뛰어났다. 하지만누가그들의정치적수완을믿을수있겠는가. 그들의완전한군인자질을정치의단상에세우면, 과연호조씨 9 대, 아시카가 (足利) 씨 13 대, 도쿠가와 (德川) 씨 15 대의기초를열수있었겠는가.

항우와제갈량

일흔네차례의크고작은전쟁에서승리한항우는법을 3 장으로줄인고조 (高祖) 에미치지못했다. 제갈량의팔문八門과둔갑은결국무제 (武帝) 인맹덕 (孟德) 의신서新書에미치지못했다. 사회의인심을연결하고천하의태평을부르는길은깃발을들어올리고장수를베는힘이아니라분명히다른데있기때문이다.

프리드리히와나폴레옹

군대의무인가운데가장정치적공적이뛰어난것은프리드리히 (Friedrich II, 1712~1786) 와나폴레옹이다. 하지만프리드리히는처음부터무인생활을몹시싫어하여전투를익히는것을큰고통으로여겼다. 그는군국주의적이상상의적당한대표자가아니다. 그런그조차도견고한건설을사후에남길수없었다. 나폴레옹의제국이양국의교상橋上의불꽃처럼갑자기빛났다가사라졌음은두말할나위도없다.

생각건대, 사법권독립이완전하지않은동양각국이외에는이처럼황포한재판, 황포한선고는육군이나군법회의가아니면결코볼수없는일이다. 보통의민법, 형법이절대호락하지않는일이다.

줄라, 결연히일어서다

그런데도용맹한수만의군대중에드레퓔스를위하여무고함을외치고재심을촉구하는자가단한사람도없었다. 모두들오히려무고한사람을죽이더라도육군의치욕을덮는편이좋다고말한다. 그때에밀줄라가결연히일어섰다. 그의불과같은꽃과같은위대한글은뚝뚝떨어지는빨간열혈을프랑스 4 천만국민의머리위로부었던것이다.

당시에만약줄라가침묵했다라면프랑스군인은결국입을다물고드레퓔스의재심이영구히열리지못했을것이틀림없다. 그들이정의롭지못하고수치를모르고용기가없는것은실로이런상태이고, 시정의일개문사에미치지못했다. 군인적교련이라는것은이렇게보면조금도가치가없지않은가.

당당한군인과시정의일개문사

맹자는“스스로를반성하여옳다고생각하면천만명이가로막아도단호히나아간다”고말한다. 이기개와정신이일개문사에게보이고당당한군인에게보이지않는것은어찌된까닭인가.

어찌면윗사람에게반항하는것은군인이해서는안되는것이고, 또한할수가없는것이다. 드레퓔스사건당시프랑스군인의맹종은그것만으로는아직그들의도덕심결핍을증명하기에충분하지않다고말하기도한다. 정말로그런가. 그렇다면더욱현저한실례를보여드리고자한다.

키치너장군

지금트란스발로 옮겨서싸우고있는키치너장군은영국의군국주의자나제국주의자가신처럼 숭배하고 존경하는인물이아닌가. 보라. 그는먼저수단에원정하여마흐디의분묘를발굴하고그것으로만족한바로그사람이아닌가. 오자서 (伍子胥) 가아버지의원수를치기위하여평왕의시체에채찍질을한것은 2 천년이나옛날일이라, 이미식자들이조롱하고매도하는바가아니었는가. 하물며 19 세기말엽의문명시대에공공연히대영제국의국기아래현지인들이성자라부르고구세주로받드는위인의분묘를발굴하는것은머한대령이일컬은극기와인내, 용기를양성한군인이기에비로소아무렇지도않게할수있는일일것이다. 천하의인심을선동하여모조리군국종軍國宗의신도로삼고마흐디의분묘를발굴하는마음을이상으로삼아한나라의정치가이잔인한손에맡겨진다고한다면, 이또한가공할만한것이아닌가.

임받고, 반대하는자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 ... 애초에도 당의 음모에 관여하기를 꺼리는 자는 인간 질하는 자로 간주되었고, 적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로 낙인찍혔다. ... 나쁜 짓을 해서 남을 곤경에 빠뜨리는 자는 감탄을 받고, 양민을 선동하여 죄악을 권하는 자 또한 더더욱 감탄을 받았다. ... 복수는 자기보다도 더 높고, 각당파간의 일치 단결은 다만 그 세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기간 동안만 유지되었을 뿐이며, 그들이 다른 당을 압도하게 되면 간계나 폭력을 있는 대로 휘두르고 무서운 복수가 또한 연이어 일어났다. ... 이리하여 전쟁은 그리스인의 모든 악덕을 자아냈다. 고상한 천성의 한 요소인 질박함이라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고 모습을 감추었다. 추잡하고 불쾌한 투쟁, 폭력적인 복수심이 도처에 만연하고 그들을 화해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마디 말조차 없었으며, 그들을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한 마디 선서조차 없었다. ... 비열한 잔꾀를 부리는 자는 일반적으로 가장 성공했다.

아아, 이것이 고대 최고의 문명국, 모든 시민이 군대적 교련을 경험한 지역에서 군국주의자가 찬미하는 전쟁이 낳은 결과가 아닌가. 우리 일본의 군국주의자도 마찬가지로 청일전쟁 후 사회인심이 이와 거의 대동소이함을 보고 틀림없이 만족하고 있을 것이다.

로마를 보라

내려와서 로마를 보라. 그들이 용전분투하여 이탈리아 각지의 자유를 빼앗은 결과로 마시민은 어떠한 품성을 기를 수 있었는가. 어떠한 미덕을 신장시킬 수 있었는가. 국내는 마침내 참담한 도살장이 되었다. 마리우스(Gaius Marius, BC157~BC86) 가 나타나고, 술라(Lucius Sulla, BC138~BC78) 가 나타났다. 민주공화국은 귀족전제국으로 변했다. 자유시민이 준동하는 노예가 되지 않았던가.

드레퓔스대사건

최근에 세계이목을 집중시킨 프랑스의 드레퓔스 사건은 군정이 사회인심을 부패시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다. 재판이 애매하고 처분이 난폭한 것은, 그 사이에 일어난 유언비어의 기괴하고 추악함을 보면 알 일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프랑스 육군은 거의 악인과 치한으로 충만한 듯한 의심을 품게 했다.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군대조직에서는 악인이 허용될 수 있는 것은 분발휘하는 것이라 사회보다도 쉽고, 정의로운 인물이 치한과 비슷해지는 것 또한 다른 사회에 비해 한층 쉽다. 왜냐하면 육군은 압제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권위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계급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복종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도리가 문안으로 들어서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워싱턴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32~1799) 은 현자다. 그는 이른바 나면 장군이요 들면 재상이었다. 하지만 그를 결코 순전한 무인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시운에 휩쓸려 싸운 것이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미국의 정치가

미국에서 군인의 소양이 있는 자가 일찍이 최상의 정치가에 들지 못한 것은 특히 주의할 가치가 있다. 무인으로서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 1767~1845) 이 아닌가. 그리고 관직 생활은 그의 시대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그랜트 장군(Ulysses Simpson Grant, 1822~1885) 은 최근의 무인 중 가장 존경할 만한 인물로 꼽힌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성적이 대단히 좋지 못했음은 당원조차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전쟁에서 인내와 정직 함속에서 발휘된 기술이나 수완을 문사에 응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랜트와 링컨

나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이 군사에 정통하여 모든 장군이 그의 술책에 결코 미치지 못했음을 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히 진정한 대 정치가는 군국에 관한 것도 쉽게 요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군인적 교련이 대 정치가를 만든다는 어리석은 이론의 증거가 아니다. 일찍이 공자(孔子) 는 문사(文事)가 있는 자는 반드시 무비(武備)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워싱턴이나 링컨은 이 쪽이다. 하지만 무비가 있는 자가 반드시 문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랜트 장군과 같은 경우가 이 쪽이다.

넬슨과 웰링턴

근대 영국에서 세계에 공명을 떨쳐 군인의 이상이 자군국주의자들의 숭배 대상이 된 사람으로 육지에는 웰링턴(Arthur Wellesley Wellington, 1769~1852) 이 있고, 바다에는 넬슨(Horatio Nelson, 1758~1805) 이 있다. 웰링턴의 정치적 수완은 얼마간 범용 정치가의 수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코 일을 경영하고 만민을 지도할 재목은 아니었다. 그는 철도가 하등 승객에게 부여하는 편리함을 “하층인민으로 하여금 쓸데없이 전국을 여행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이에 반대하지 않았던가. 넬슨에 이르러서는 거의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는 해군이외에는 추호의 가치도 없는 인물이었다.

야마가타, 가바야마, 다카시마

눈을 돌려 우리 일본을 보자. 어찌 그들 군인의 정치적 수완이 칭찬할 만한 것이겠는가. 동양의 몰트케, 넬슨, 웰링턴에 비유되어 숭배되는 야마가

타후작이나가바아마백작, 다카시마자작은메이지의정치사, 사회사에
서과연어떠한특기할만한점이있는가. 선거간섭, 의원매수의전례를만
들어우리사회의원심을부패와타락의극점으로빠뜨린죄악을저지른장
본인이 아닌가.

나를몇대로군인과군대를매도하는사람으로여기지말라. 나는농·공·
상가운데지자智者나현자가있는것처럼, 군인중에도또한지혜로운자나
현명한자가있음을안다. 나는그러한사람들은존경하기를주저하지않는
다.

군인중지혜로운자와현명한자

다만지혜로운자나현명한자는군대적교련을거치거나전쟁을겪고비
로소생겨나는것이아니다. 손에충검이없고, 어깨에견장이없고, 가슴에
훈장이없어도, 지혜로운자나현명한자는능히지혜롭거나현명하다. 하
지만그들이아무리지혜롭고현명하더라도, 군인의직무로서나군인교육
의성과로서는사회전반에아무런이익도주지못한다.

통일을배운다고말하지말라. 사람을죽이는통일이무엇이존경할만
한가. 규율에복종한다고말하지말라. 재물을허무는규율이무엇이존경
할만한가. 용기가생긴다고말하지말라. 문명을파괴하는용기가무엇이
바람직한가. 아니이규율, 통일, 용기조차도그들이병영을한발짝만나가
면아득하여흔적을남기지않는다. 남은것은오로지강자에맹종하고약자
를능멸하는악풍뿐이다.

4

군국주의의폐해

군국주의와전쟁은단지사회문명의진보에도움이되지않을뿐만아니
라, 사회문명을잔인하게해치는폐해가가공할만하다.

고대문명

군국주의자는고대문명이역사에출현했을때는모두병상兵商일치의
사회였다고말한다. 그들은고대이집트, 고대그리스를군비가문명을진
전시킨증거로들려고한다. 하지만틀렸다. 나는민는다. 이집트가무력정
복, 군비위주로타락하지않았다면, 번영이수백년은더지속되고, 명맥은
수천년은보존되었을지도모른다고생각한다. 이문제에관해서그리스는
따로일고의가치가있다.

아테네와스파르타

고대그리스가무력을중시했다고해도, 각국은자연히달랐다. 스파르
타는철두철미하게군국주의를유지했다. 생활은조련이었고, 사업은전
쟁이었다. 그외에는아무것도없었다. 그리하여이미앞에서언급했듯이
스파르타문명은하나도불만한것이없다. 아테네에이르면이정도로극단
적이지않다. 페리클레스는, 우리는저와같은조련으로자기를고통에빠
뜨리지않아도유사시에용기가꺾이지는않는다. 우리는전쟁에대응할준
비에급급하여생애를조련에다쓰는자에비해결코뒤떨어지지않을것이
라고말했다. 이것은커다란이익이아니겠는가. 근대의군국주의자는스
파르타를선택할것인가, 아테네를고를것인가.

그들이아무리어리석더라도풍요로운아테네문명을버리고감히스파
르타의야수적군국주의를찬미하지는않을것이다. 그런데도군국주의자
들의주장에비추어보면, 스파르타가바로그들의최대이상에합치하는것
이아닌가.

펠로폰네소스전후의부패

군국주의자는이렇게말할지도모른다. 우리들은스파르타같은극단
적인것을원하지않는다. 다만아테네의군국주의를모범으로하면그것으
로선하고아름다운상태가될것이라고한다. 그렇다. 스파르타에비하면
그래도괜찮다. 하지만생각해보라. 아테네도군비가정치개혁에관여하
여무슨성과를올렸는가. 사회적품성의향상에관여하여얼마만큼효과가
있었는가. 시민들에게전쟁을선동하는것 이외에과연어느정도의이익과
손해가있었는가. 아테네가펠로폰네소스전쟁에중사하기를 30 년, 군
국주의의이익과효과는이때에비로소최고로발휘되었어야하지않았던
가. 그렇지만결과는반대였다. 다만부패와타락이있었을뿐이다.

투키디데스의위대한역사서

펠로폰네소스전쟁이그리스인민의도덕을완전히일소하고신앙을파
괴하고도리를인멸하여얼마나처참한상태가극에달했는가를불필요가
있다면, 일단투키디데스가쓴천고의역사서를빌려오자. 투키디데스는
다음과같이묘사한다.

여러도시에서소요가일단발생하면, 혁명적정신은계속전파되어중
래의것들이모조리파괴되지않고는끝나지않는다. 그시도는나타날때마
다한층홍포해지고, 그복수는일어날때마다한층치참하다. 언어의의미
는이미실제사물과의관계를잃고다만그들이적당하다고여기는대로변
경되었다. 저돌이나맹진猛進은용맹이라는의미로사용되었다. 신중한
사려는비겁한자의구실로여겨졌다. 온화함은연약함의이면이라고일컬
어졌다. 만사를아는자는아무것도하지않는무능한자가되었다. 광인적
에너지는진정한사나이의본성이되었다. … 광포함을좋아하는자는신